



NRF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18

국민의 꿈을 함께 이루는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

About This Report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의 두번째 사회책임경영 보고서입니다.

국내 최대 연구지원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고유의 사업을 통해 경제·환경·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단의 핵심 사업과 주요 경영 활동에 관한 사회책임경영 성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GRI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는 전문기관인 THE CSR 검증위원회의 신뢰성 검증을 거쳤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속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재단의 활동을 보고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회가치 전략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전 화 042-869-6090, 6092
홈페이지 <https://www.nrf.re.kr>

CONTENTS

INTRODUCTION	3
이사장 인사말	6
숫자로 보는 NRF	8
2018 하이라이트	10
한국연구재단 소개	12
사업소개	14
거버넌스	16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	18
이해관계자 소통 및 중대성 평가	20

NRF가 만드는 사회적 가치	22
국가 성장을 위한 연구지원	24
창의적인 연구인재 양성	32
공공가치를 높이는 연구기반 조성	42
건강한 연구윤리 확산	50
안전한 사회환경 기여	58
지역사회 동행	66
사람중심 조직문화 조성	74

APPENDIX	82
GRI Standard Index	84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 제3자 검증의견서	88
제3자 검증의견서	90
수상실적	92
국내외 협력기관	93

The image features a background with a blue-to-green gradient. A large, stylized, semi-transparent letter 'D' is centered on the page. A horizontal line with a yellow-to-green gradient passes through the middle of the 'D'.

PART 1.



INTRODUCTION

이사장 인사말

“국민의 꿈을 연구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연구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

2018년도에 한국연구재단의 첫 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두 번째 사회책임경영 보고서로 인사드립니다. 사회책임경영 보고서를 통해 재단의 본분인 창의적 연구 지원과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재단은 국내 최대의 국가 R&D 지원 기관으로서 국가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은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가집니다. 과학 기술은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문사회과학은 개인의 통찰력과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에 부여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회적 책임 실천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둘째, 연구재단은 창의적 연구를 위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지원 합니다.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과 포용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자 자율에 근거한 책임 있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연구재단은 다양한 연구 성과의 확산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합니다. 연구지원으로부터 발생한 성과를 일반 시민과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사회공헌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임직원의 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은 한국연구재단 창립 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향후 새롭게 비전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3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노 정 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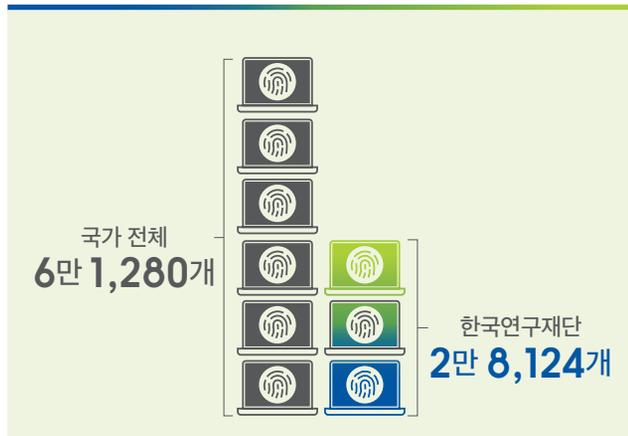
숫자로 보는 NRF

연구지원 예산 및 과제

2019년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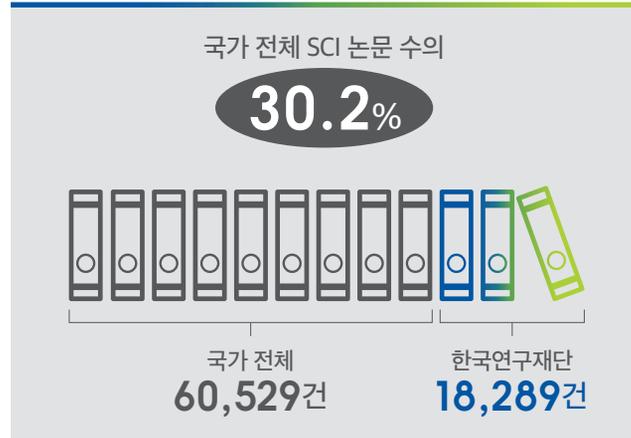


과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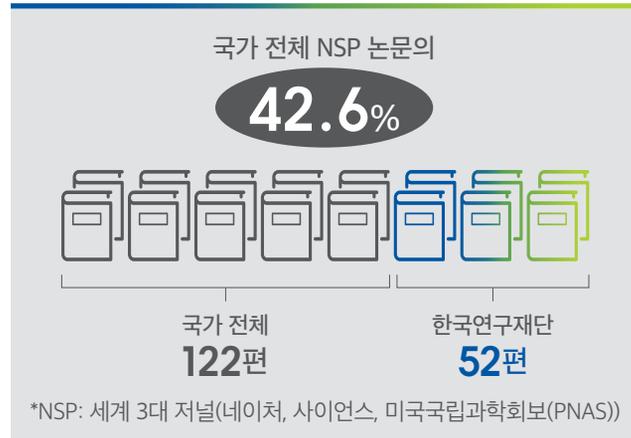


연구지원 핵심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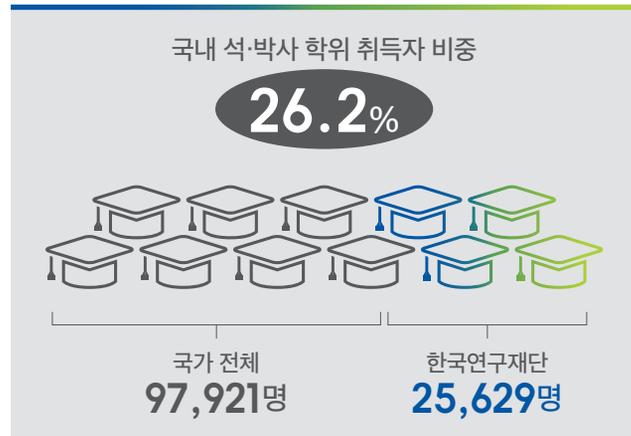
SCI 논문 수(기여율 고려)



NSP* 논문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



연구지원 시스템

기획마루



국책기획 PM **9명**
PM분야 **9개**
RB(전문위원) 분야 **76개(169명)**
2018년 제안 건수 **1,200건**

일반국민들도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제안

성과마루

성과소개서 **40,501건**



연구개발 성과정보를 수요자가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성과소개서와 성과지도를 탑재

e-R&D



e-R&D 방문자 월 **18만명**
연간 데이터 생산량 연 **30만건**
평가자풀 **8만 3천명**

국가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사업 통합지원 시스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
154만 2,103건



KCI 등재(후보) 학술지
2,438종

- KCI 등재 2,095종
- KCI 등재후보 343종



학술단체기관
9,337개

논문간 인용관계를 분석한 KCI(Korea Citation index)를 제공

기초학문자료센터(KRM)



보고서 **51,418건**
학술논문 **76,659건**
단행본 **2,866건**

인문사회 연구성과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

2018 하이라이트

포용적 연구지원

이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최초혁신실험실 구축지원 신설
348과제 지원
 생애 첫 연구 지원 확대
1,685과제 지원



인문사회분야 장기·안정적 연구지원 확대

6년 이상 장기연구 및 후속지원 확대
127과제 지원



포용적 연구지원 강화

임신·육아 휴직 시 연구기간 최대 **2**년 연장
 소외분야 지원 확대
189과제 지원



경력단절 여성과기인 연구복귀 지원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
7대 대표우수사례 선정



효율적 연구지원

12개 연구비 관리시스템 통합

이지바로(Ezbaro) 시스템 구축
 2019년 기획재정부
10대 혁신과제 선정



정밀정산 효율화 및 종이 영수증 보관 폐지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정밀정산 과제 **79%** 축소
 연 **136**만 건의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



근로계약 체결 학연협동 과정생 피해 예방

지침 개정을 통해
1,499명 장학금 지급자격 유지



좋은 일자리 창출

연구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목표대비 **109.2%** 달성
 (목표) 7,150명 (실적) 7,807명



사회맞춤형 인재양성 강화

현장 연계 공동교육과정 확대
192개 과정

사업참여 학생 취업률 **78.2%** >
 대학평균 취업률 **62.6%**



직접고용 100% 달성

정규직 전환 절차 만족도
4.11점(5점 만점)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

부실학회 예방책 마련

부실학회 예방가이드 제작 및 배포
 부실학회 논문게재 **71%** 급감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실 안전 강화

최근 3년간 연구윤리 교육
86,230명 이수

안전지도·검사 확대(471건) 및 사망사고 제로화 달성



대학원생 연구현장 인권 개선

인권센터 신규 설치(**8**개 대학) 및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노력

연구 성과의
대중 확산 및 공유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
26,676명 참여

인문학 강좌
187,483명 참여



학술정보
국민 공유 확대

논문정보 **742**만건,
과제정보 **114**만건,
성과정보 **840**만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가치 혁신 네트워크 출범

재단, 주민, 시청,
지역대학 참여



공공기관
최초 결제방식 전환

카드수수료
41백만원 절감

소상공인 지원
경영자문단 운영



사회적 가치 실현 수상·인증

미국 LACP 주관 '2017/18
비전 어워드' 금상 수상

전 세계 **1,000**개
기업 중 상위 **3%**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랑받는 기업 정부 포상

모든 공공기관 중
5개 기관 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열린 혁신
장관 표창

모든 공공기관 중
26개 기관 수상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관 수상

연차 사용률
88.7%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정기관 선정

여성 관리자 비율
20.1%
(공공기관 평균 **17.28%**)



고용노동부 주관
인적자원개발(Best-HRD)
우수기관 인증

사회적 가치 교육과정 확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 최고 등급

2년 연속
최고 등급



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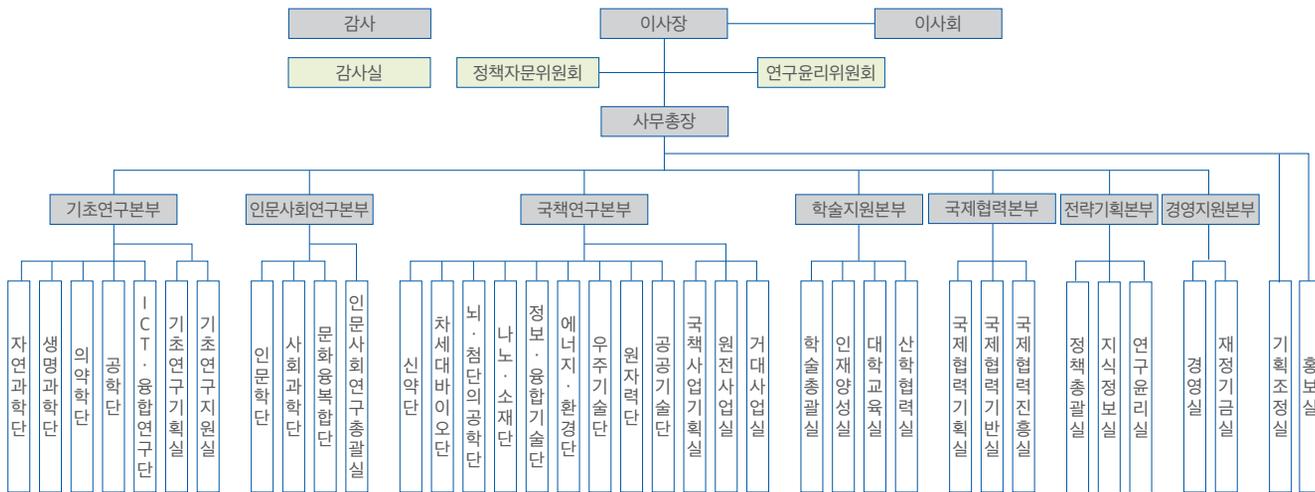


한국연구재단 소개

한국연구재단은 창의적 연구와 인재양성 지원을 통해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연구지원 전문기관입니다. 연구자들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선진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세계 최고의 연구지원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설립일	2009년 6월 26일
이사장	노정혜
주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성격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본사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0(가정동)
임직원수	471명
조직현황	7본부 17단 21실

조직도



인원현황 (2018년 현원 기준)

상임임원 (A)	정규직 (B)	무기 계약직 (C)	임직원 총계 (A+B+C)	사업 위촉직	소속 외 인력	여성 인력
2명	324명	145명	471명	25명	20명	178명

연혁

2009.06.26한국연구재단 출범 및
제1대 박찬모 이사장 취임**2009.07.28**

한국연구재단 창립 이사회 개최

2011.01.20

제2대 오세정 이사장 취임

2012.01.06

제3대 이승중 이사장 취임

2014.01.03

제4대 정민근 이사장 취임

2016.08.23

제5대 조무제 이사장 취임

2018.07.09

제6대 노정혜 이사장 취임

2019.06.26

한국연구재단 창립 10주년

주요기능 및
역할

학술·연구개발 활동 및 관련 인력의 양성·활용 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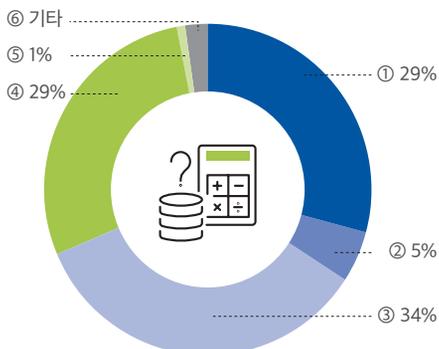
학술 및 연구개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 개발 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의 연구·운영지원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기타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예산현황 (2018년 기준)



구분	금액(단위: 억 원)	비율(단위: %)
①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	14,516	29%
②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	2,652	5%
③ 국책연구 지원	17,305	34%
④ 연구진흥 및 인재양성	14,400	29%
⑤ 국제협력연구 지원	627	1%
⑥ 기관 고유사업 등 기타	1,099	2%
총계	5조 59억 원	100%

사업소개

기초연구사업



연구 잠재력을 활용해 기초연구를 활성화시킵니다.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며 세계적인 선도 과학자군을 양성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첨단기술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국내 유일의 지원사업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술연구와 기초연구를 지원합니다. 국민들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대중과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우주, 핵융합, 기후변화 대응 등 거대과학분야 연구를 추진하여 미래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인류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나갑니다.

산학협력사업



대학과 기업이 상생하도록 협력 사업을 운영합니다. 대학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 육성으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원 추진

한국연구재단의 주요 역할인 연구사업 지원은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중점 추진사항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한국연구재단 및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연구자들이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단은 평가방법, 예산배분, 선정규모 등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평가와 종합 평가 등을 거쳐 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지급받게 되며 재단은 연구 기간 동안 진도를 관리하고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원천기술개발사업



창조적 지식을 바탕으로 원천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합니다. 바이오, 나노 및 미래 유망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원자력을 통해 에너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원자력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방사선을 이용하여 새로운 응용기술 개발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합니다.

인력양성사업



전문적인 교육과 인프라로 연구자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연구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우수한 미래 연구인력과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연구기반 구축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자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연구지원 정보시스템, 국제협력 네트워크, 안전한 연구실 구축 등 다양한 지원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합니다.

전문가에 의한 연구관리

한국연구재단은 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PM(Project Manager)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학문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M은 상근 PM과 비상근 PM으로 나뉘며 2018년도 기준 상근 PM은 20명, 비상근 PM은 701명입니다. 연구사업 관리 전문가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분	인원	역할
상근 PM	본부장	3	본부 소관 사업 총괄 및 조정
	단장	17	학문분야별 사업기획 및 관리 등
	소계	20	
비상근 PM	책임전문위원(CRB)	44	전문위원 그룹 대표 및 단장 업무 지원
	전문위원(RB)	657	심사자 추천 및 온라인 평가결과 Review 등
	소계	701	
	계	721	

거버넌스

이사회 구성

한국연구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14인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선임직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게 됩니다.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기획재정부의 차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 감사와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당연직 이사는 재임기간까지를 임기로 합니다. 이사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심의, 성과 모니터링 등 한국연구재단의 주요사항을 관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원 현황>

구분	성명	성별	소속 및 지위
이사장	노정혜	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위행복	남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강명숙	여	배재대 교직부 교수
	김귀옥	여	한성대 기초교양교육과정 교수
	김성수	남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김정인	여	춘천교육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임현의	여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한홍열	남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섭	남	신성이엔지 솔라부문 CEO
	박종현	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비상임이사 (선임직)	장은주	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전무
	최영주	여	포항공대 수학과 교수
	문미옥	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박백범	남	교육부 차관
	구윤철	남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감사	이재력	남	한국연구재단 감사

이사회 운영 만족도

97.1점



이사회 운영 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의결안건(건)	21건	21건	28건	이사회 활성화에 따른 증가
사전심의율(%)	100%	100%	100%	
수정의결안건(건, %)	2건 (9.5%)	7건 (33.3%)	5건 (17.9%)*	사전심의 강화로 감소
이사회 참석률(%)	80.8%	75.0%	82.3%	
비상임이사 참석률(%)	81.3%	73.2%	80.4%	비상임이사의 참여 제고를 위한 개최 이행 표준화
비상임이사 발언비중(%)	47.0%	34.9%	63.9%	

* 비상임이사회 활성화를 통한 사전심의 강화(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제안, 24건^{17년}→41건^{18년})로 수정의결 감소함

여성임원 비율

50%



경영혁신위원회

7회 개최



사회적 가치 지표

검증 결과 92.6점



공정한 선임

한국연구재단은 기관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여성 임원 비중의 확대를 통해 양성평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였습니다. 기존 남성 11명, 여성 5명으로 이루어진 임원 구성을 2018년도에는 남성 8명, 여성 8명으로 전환하여 여성 대표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비상임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8개 기관의 추천을 받고 21개 채널을 활용하여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경영혁신위원회, 이사장 직무대행, 임직원과의 소통 창구 등 경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혁신위원회

한국연구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경영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위원회는 이사장, 사무총장, 본부장, 단장, 직원 직급별 대표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투명한 경영, 일자리 창출, 개선 사항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사업을 논의 및 지정하고 사회적 가치 지표(Social Value Index)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실시합니다. 2018년 총 7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영혁신위원회 개최 실적>

차수	일시	주요 안건
1차	2018. 01. 29.	2018년 주요 업무 계획 검토
2차	2018. 07. 23.	경영혁신 추진계획안 심의
3차	2018. 08. 27.	사회적 가치 추진 지표 검토
4차	2018. 09. 20.	경영혁신 내부직원 워크숍 실행과제 검토
5차	2018. 10. 29.	사회적 가치 추진계획안 보고 (6대 전략, 18개 추진 과제)
6차	2018. 11. 19.	혁신성장 주제 발굴안 검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보고,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발표
7차	2018. 12. 26.	경영개선 종합 추진계획 논의 및 실적 점검

<경영혁신위원회 개최>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

사회적 가치 실현이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책임 이행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 사업에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UN이 제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ISO 26000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지표화하고 정기적인 측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연구지원과 글로벌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의 질적 도약, 우수한 인재 양성, 국가 과학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목표를 세워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미션	창의적 연구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비전	학술·연구 혁신으로 국민의 꿈을 함께 이루는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			
핵심가치	새로운 가치	미래 핵심역량	연구자 감동	국민 공감
전략목표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상위 10% 논문 20% 달성)	우수연구 인적자원 확대 (국내 석박사 30% 배출)	연구투자 효율성 극대화 (과학 경쟁력 세계 5위)	혁신 기반 사회적 가치실현 (일자리 창출 50,000명)
전략목표	1. 연구자 중심 지원체계 고도화	5.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기반마련	9. 개방·소통의 연구기획 인프라 확충	13. R&D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
	2. 국가성장동력·사회문제해결 연구지원	6. 인재 확보를 위한 포용적 연구지원	10.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14. 참여·소통 강화로 혁신경영 실천
	3. 인문학·사회과학 진흥 및 연구지원 확대	7. 연구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11. 연구성과 활용의 선순환 구조 확립	15. 청렴하고 즐거운 조직문화 확산
	4. 전 학문분야 융합연구 생태계 조성	8. 지역기반 산·학·연 협력 활성화	12. R&D 혁신 시스템 구현	16. 지속가능한 조직 역량확보

사회적 가치 전략체계

<p>사회적 가치 목표</p>	<p>참여와 신뢰 기반의 R&D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p>		
<p>중장기 로드맵</p>	<p>2018 가치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에 맞는 사회적 가치 추진방향 및 전략 수립 사회적 가치 인식·확산 국민 참여 확대 기반 마련 	<p>2019-2020 가치 플랫폼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확대 국민에게 다가가는 성과 창출 국민 참여에서 협력으로 	<p>2021-2022 가치 창출 극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체계 내재화/문화화 사회적 가치 성과 극대화 국민과 함께 성과 향유
<p>6대전략 추진과제</p>	<p>1.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일자리 플랫폼 강화 포용적 연구지원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강화 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p>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계층/대상 정책적 배려를 고려한 연구지원 강화 PM제도 개선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기회 및 통합 기반의 전략적 인사관리체계 실천 	<p>3. 안전 및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체감형 국민생활연구 R&D 추진으로 국민 안심 재난·안전 대응으로 환경보전·실천문화 조성 전사적 업무환경·체계구축으로 근무업무 환경 향상
<p>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가치 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R&D 성과관리 및 협업을 통한 실용화 연계 강화 	<p>5. 윤리·책임 경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無(부패, 갑질, 성희롱·성폭력) 실현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내부건제시스템 활성화 연구부정행위 등 근절로 건강한 연구 생태계 조성 	<p>6. 삶의 질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자와 근로자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일·생활 균형을 통한 행복한 일터 구현 국민 참여·제안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 공감 	
<p>모니터링</p>	<p>경영혁신위원회, 시민참여혁신단, 혁신자문단, 혁신 실무추진단, 주니어보드 등</p>		
<p>환류</p>	<p>우수사례 공유 및 혁신모델 확산</p>	<p>미비점 개선·보완(단계적 추진)</p>	

이해관계자 소통 및 중대성 평가

이해관계자 사회적책임경영 인식수준 (5점 만점)



사회적 가치 창출 순위

1위	책임·윤리
2위	일자리
3위	상생협력
4위	건강복지
5위	환경
6위	참여·소통

※평균 답변 수 이상 항목

한국연구재단은 사업 수행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재단은 기존 이해관계자 분류 카테고리에 지역주민과 협력업체, 파견·용역직을 신규 추가하여 보다 세분화된 이해관계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소통을 실시합니다. 중대성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재단에 기대하는 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한국연구재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해관계자 맞춤형 소통을 목표로 대내외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해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고 대표적으로 지역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주요 사업 및 경영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유형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주요 기대사항
가치창출	임직원	혁신위원회, 간담회	자금심, 조직비전 공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정규직 전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간담회, 개선협의회 등	공정한 평가,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제고
가치협력	정부·국회	전략회의, 설명회	국정방향 구현
	전문기관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정보공유·협업
	주관기관	간담회	정책 확산, 편의성
가치공유	지역사회	혁신 네트워크(PLUS)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연구자	연구자 간담회 등	연구지원·평가 간소화
	(참여)국민	기획마루, 국민생각함	국민 참여 채널 확대
가치평가	(향유)국민	SNS, 블로그, 강연회	국민 공감 확산
	협력업체	정례회의, 간담회	상생·협력, 구매 증대
	언론매체	홍보협의회, 간담회	경영·사업성과 홍보

사회적 책임이행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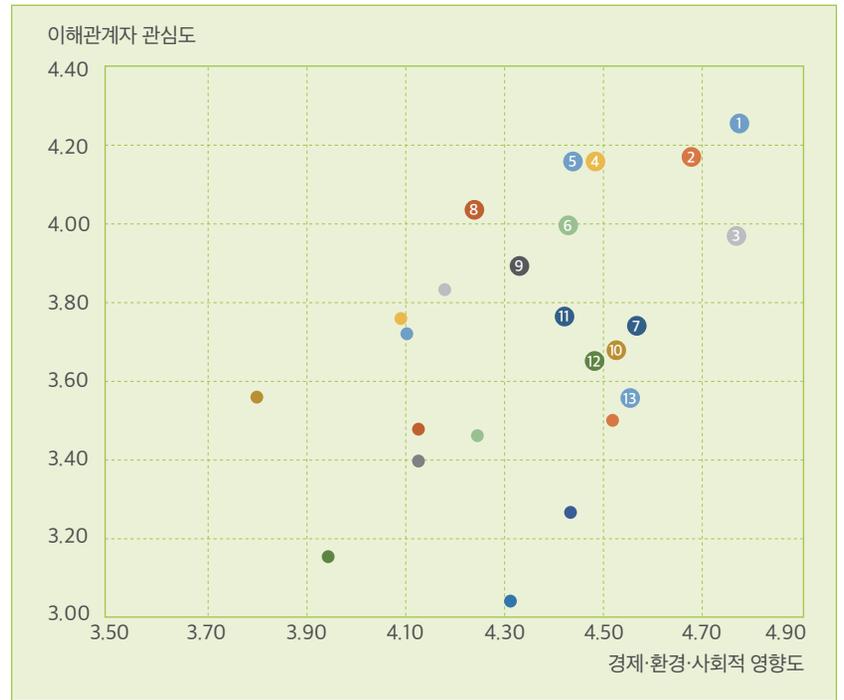
한국연구재단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책임경영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책임경영 수준에 대한 인식은 평균 3.61점으로 전년도 대비 0.02점 상승하였습니다.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내부 임직원의 평가가 작년 대비 대폭 상승한 반면 외부 이해관계자의 평가는 소폭 하락하여 대외적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책임·윤리, 일자리, 상생협력을 한국연구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영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한국연구재단은 이해관계자가 주요하게 인식하는 이슈를 선정하여 보고하고자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 이해관계자인 재단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인 연구자, 일반 국민, 정부기관, 협력업체 등 총 1,343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국제표준, 선진기업 벤치마킹 등 외부환경을 통합 분석하여 재단의 13가지 중대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중대이슈

- ①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비 예산 집행
- ② 청렴하고 윤리적인 조직문화 조성
- ③ 공정한 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
- ④ 연구 지원을 통한 간접적 경제기여
- ⑤ 기후변화와 대응을 위한 연구 지원 확대
- ⑥ 연구몰입 위한 안정적 지원 및 행정 간소화
- ⑦ 연구 진실성 저해하는 부정행위 근절
- ⑧ 양질의 일자리 창출
- ⑨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 ⑩ 연구데이터 보안 및 체계적 관리
- ⑪ 미세먼지·녹조 등 생활밀접 환경이슈 연구
- ⑫ 다양성 존중 및 차별없는 보수·복리후생
- ⑬ 인권경영 내재화



중점보고 테마	중대이슈	GRI Aspect	UN SDGs
국가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④	간접경제효과	SDG 9 SDG 13
창의적인 연구인재 양성	⑧	다양성과 기회균등, 차별금지	SDG 5 SDG 8 SDG 10
공공가치를 높이는 연구기반 조성	③⑥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SDG 9 SDG 16
건강한 연구윤리 확산	①②⑦	반부패, 인권	SDG 16 SDG 17
안전한 사회환경 기여	⑤⑩⑪	원재료, 배출	SDG 3 SDG 7 SDG 13
지역사회 동행	⑨	지역사회	SDG 2 SDG 4 SDG 10
사람중심 조직문화 조성	⑫⑬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다양성과 기회균등, 차별금지	SDG 5 SDG 10



PART 2.

NRF가 만드는

사회적 가치

- 24 국가 성장을 위한 연구지원
- 32 창의적인 연구인재 양성
- 42 공공가치를 높이는 연구기반 조성
- 50 건강한 연구윤리 확산
- 58 안전한 사회환경 기여
- 66 지역사회 동행
- 74 사람중심 조직문화 조성

FOCUS 1.

국가 성장을 위한 연구지원



IMPORTANCE OF TOPIC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은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재난 및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문학은 개인의 통찰력과 사회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최근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인문사회-과학기술 간 융복합 공동연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NRF APPROACH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연구 혁신으로 국민의 꿈을 함께 이루는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로서 전 학문분야의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기관에 부여된 고유 목적입니다. 과학기술연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문제를 해결하고 인문사회연구로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연구과제를 균형있게 지원합니다. 국민이 과학기술과 인문학을 보다 가까이 느끼도록 대중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ISSUE 1.

미래선도 과학기술연구



공공성 강화

- 국민현안해결형 R&D 강화
- 집단지성 반영 과제방향 모색
- 혁신성과 국민공유 활동

기후변화 대응기술 공유

지구를 살리는
1도의 기술



성과 해외이전 7개국

1조원 창출



신시장
창출형

10개 과제 선정



ISSUE 2.

사회통합 인문사회연구



참여·소통

- 인문학 지원사업 심화
-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성과 확산
- 인문학 소통 기회 확대

연구성과 정책연계 부합도

90.9점



인문사회과학 아젠다

40건 발굴

관련 연구과제

94개 지원



국내 최대 인문사회 분야
연구성과 국민 향유

인문사회 187,483명
만족도 94.2점



사람을 위한 과학기술연구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과학기술연구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연구지원기관으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와 민간투자가 어려운 고위험·도전형 연구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한 개방형 연구를 기획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국민과 공유하였습니다.

혁신성장 사업예산

194,794백만원



혁신성장 분야 투자 확대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인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2018년에는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혁신성장 관련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세포유전자 치료 기술을 7개국에 수출하여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혁신성장 신규과제에 연구비를 확대하여 미래 산업을 대비할 계획입니다.

<혁신성장 8대 추진분야>

정부협업	자체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이동체 • 맞춤형 헬스케어 • 첨단소재 • 혁신신약 • 신재생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지원 • 미세먼지 • 혁신창업

치매 원인규명을 위한
R&D 플랫폼 구축

46.5억원 투자



미래지향연구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재단은 미래지향적인 연구지원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국민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탐색합니다. 2018년에는 재난정보전달 플랫폼, 치매 원인규명, 실종아동 신원분석 등의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핵심기술개발에 투자하였습니다. 기존 과학기술로 풀기 어려운 문제에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접근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술개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	문제	국민생활문제 해결 사례
환경	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작용 물질의 대체 물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수질오염	녹조 정수처리 실증시설, 적조방제 시스템 등 실증 운영
	화학제품	18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평가 DB 구축
재난·재해	소방안전	소방청 데이터 및 화재영향 인자를 통한 AI화재예측 반복학습 구현
	재난대응	재난안전정보 조사·관리체계 및 표준연계 가이드(안) 마련
에너지	감염병	바이오나노헬스가드: 감염병 분자진단시스템 구현(3종, 정확도 80%)
	에너지빈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충북 진천)으로 신재생 에너지 약 3.2억원 수익 창출 및 온실가스 약 720톤 감축 (소나무 11만 그루 효과)
사회통합	취약계층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급형 자율주행, 무선통신 기기 설계 및 제작

국민생활밀접분야 아이디어 수렴 기술교류회

150 명 참여



개방형 클라우드 기술교류회 개최

한국연구재단은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수 전문가에 의한 연구기획 과정에서 나아가 집단지성을 활용한 개방형 연구기획을 시도합니다. 연구성과에 따른 신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10개의 선정과제를 기반으로 연구자 및 일반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민과 연구자 중심의 상향식(Bottom-up)과제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지평을 열고 연구자 간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신시장창출형) 선정과제>

과제명	주관 연구기관
악성종양의 선택적 광역치료를 위한 체내 삽입형 마이크로 LED 융합기술 개발	서울아산병원
안전하고 활용도 높은 환경적응형 고층빌딩 외벽청소 로봇 연구	한양대
무전원 광 감응 자동 색변환 대면적 창호 및 필름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반투과 및 색상구현이 자유로운 디지털 사이니지 태양전지 개발	중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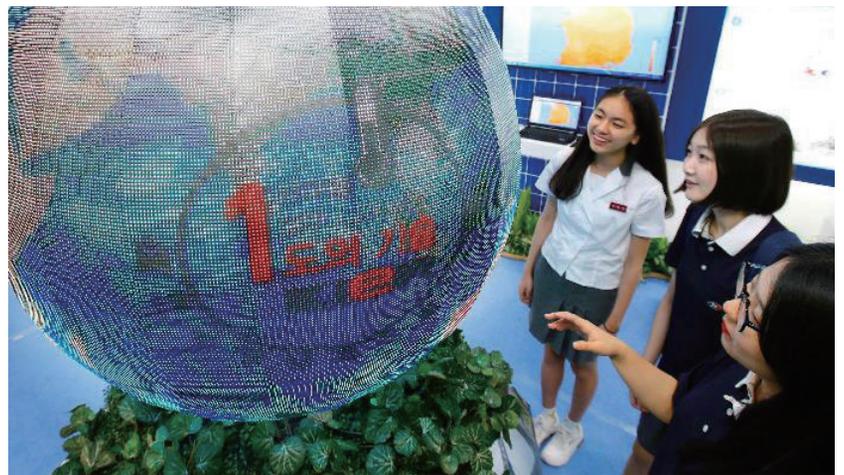
2018 기후기술대전

60여건 언론보도



혁신성과 국민 공유

한국연구재단은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기획할 뿐 아니라 연구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수성과 공유 행사를 주관 및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 지구를 살리는 1도의 기술' 행사를 유관기관과 공동 주관하여 탄소 저감 및 자원화 기술 등 우수한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국민과 공유하고 기후적응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학생, 연구자, 기업인 등 국민 2,500여명이 참여하여 기후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 본 행사에서 미래 에너지자립형 커뮤니티 체험관을 개설하여 기후기술개발 필요성을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 지구를 살리는 1도의 기술

인간의 가치와 소양을 실천하는 인문사회연구

국내 유일의 인문사회 연구분야를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은 인문학법에 따라 지정된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문학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이끌 수 있도록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성과의 선순환을 고민합니다.

인문학 진흥 기반구축

운영예산 **5억원** 확보

상설 조직 **인문학진흥팀** 신설

인문학 전담조직 확대

한국연구재단은 인문학 진흥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신설된 인문학진흥사무국을 2018년도에는 인문학진흥팀으로 개편하고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이관하여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인문사회과학 아젠다 발굴 과정>

추진 내용	추진 실적	추진 결과
인문학 아젠다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천자 518명(52기관) 경력, 성과 분석 국내외 주요기관(13개) 및 신청과제 키워드 상위 100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 분야 전문가 풀 467명 구축 아젠다 상시접수 창구(블로그) 개설 인문학 아젠다 발굴 자료집 발간
사회과학 아젠다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트렌드 및 이슈 조사 - 16개 우수학술지 2,287개 논문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위험, 4차 산업혁명, 삶의 질, 전환의 시대 등 4대 아젠다 도출
인문학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교육/인력/대중화) 인문학 현황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인문학 프로그램 현황 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 현황 통계분석 보고서 발간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인문학진흥 실적분석보고서 발간
추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수요를 반영한 아젠다 총 40건 발굴 및 관련 연구 94개 과제 지원 인문사회분야 진흥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활용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 및 교류의 장 제공 국민과 사회 요구에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인문학국연구소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HK*, HK+ 인문학국 지원사업

인문학의 위기로 일컬어지는 현 사회에서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내 인문학 연구소를 집중 육성하고자 인문학국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프로젝트 지원이 종료된 연구소 16개 중 우수한 연구소를 선정하여 HK+사업으로 연계해 기존 연구의 단절을 방지하고 연구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인문학국 지원사업은 인문학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 연구 지원비의 3% 이상을 인문학 대중화 활동에 배분함으로써 국민 삶의 문제에 대한 성찰 및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HK(Humanities Korea): 인문학국 지원사업

국내 최대 인문사회 분야 연구성과 국민 향유

187,483명 참여

연구성과
정책연계 부합도

90.9 점



제5차 SSK 차세대 사회과학자 우수논문 시상식

대중과 소통하는 인문학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인문학 분야는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인문학에 대한 일반 대중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자 인문학 대중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인문학콘서트와 라디오 팟캐스트 등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시도하였습니다.

<2018 인문학 대중화 실적>

구분	인문학 콘서트	온라인 인문강좌	인문학 팟 캐스트(신규)
참여대상	일반시민 대상	국민 누구나 (회원 약 23만명)	국민 누구나
개최지역	수도권(4개), 이외(17개)	온라인 공개강좌	온라인(오디오 캠퍼스)
목적·내용	개최지역 공모하여 지역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추진	다양한 강좌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무료 공개강좌	시의성 있는 주제로 구성 (젊은 세대 중심)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기관 확대 : 15개→31개 인문강좌 참여자 만족도 91.5점('17년)→ 94.2점('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 콘텐츠 개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제작·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1회 제공 젊은 세대에게 인문학의 연구성과 공유 및 공감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지원

현재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관련 아젠다를 발굴하는 작업은 사회과학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재단은 연구동향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적절한 아젠다를 도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MOU를 체결해 정책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연구 성과를 연계한 입법이 추진되어 사회문제 해결에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정부정책 연계 및 사회문제해결 성과확산 대표실적>

정부정책 연계 (입법화) 대표실적	사회문제해결 성과 확산 대표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법 개선안 ('18.7, 국회·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개선안('18.8, 국회·보건복지부) 과학기술헌법 개정안 ('18.1,국회·과총)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령('18.4.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규범 혁신방향('18.4, 국회) 미디어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18.5, 국회) 아동수당법 시행령('18.2, 보건복지부) 초중등교육법 개선안('18.6, 국회)

SSK* 한국사회과학연구 지원사업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 자생력을 갖추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연구집단(Think Tank) 단위의 단체연구를 지원합니다. 소형 연구팀, 중형 연구단, 대형 연구센터로 규모별 집단 유형을 나누어 지원하며 순수 사회과학분야 외 인문-사회과학 융합 과제도 지원의 대상입니다. 재단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대형 연구과제를 다루고 학문의 공공성과 실용성을 추구하겠습니다.

*SSK(Social Science Korea): 사회과학연구 지원사업

NRF IMPACT 1.

국민 공감 연구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의견 사업화

[국민생각함 미세먼지 R&D 아이디어 수렴]



한국연구재단이 공동 주관한 미세먼지 R&D 아이디어 국민 참여 토론회

미세먼지 국가적 대응 시급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 건강 및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협의체는 미세먼지 R&D와 관련한 신선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개발이 부족한 분야를 채우고자 국민 아이디어 제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한국연구재단은 이러한 범부처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미세먼지 현상 규명 및 저감 기술과 관련한 과학연구를 집대성하고 대학, 공공 및 민간 연구소, 미세먼지 R&D 전문분야 등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연구 현황과 연구 추진 방향을 공유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생각함'과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를 통해 접수된 139건의 국민 아이디어 중 9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다부처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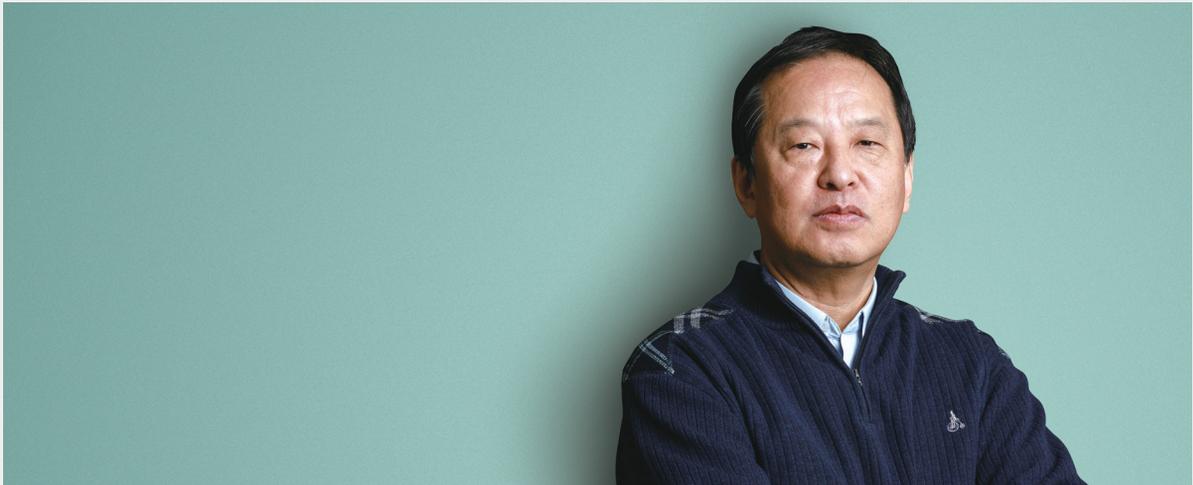
전문가 역량에 국민 아이디어 활용

한국연구재단은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생성규명을 포함하여 30개의 미세먼지 관련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 미세먼지 R&D 예산을 5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과학계의 전문가적 접근과 국민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 모두를 지원하여 연구를 통한 국민 행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INTERVIEW 1.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

미세먼지 R&D 대토론회 발표자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용표 교수]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연구개발사업입니다. 각 부처의 연구자가 함께 팀을 이루어 진행하며 2020년까지 3년간 약 500억원의 연구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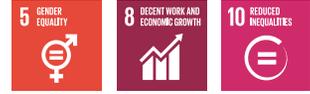
미세먼지 문제는 농도를 저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현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어떤 점을 불안해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연구개발 사업 기획, 수행, 평가에 중요합니다.

대토론회에서는 실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식물을 이용한 실내 공기질과 도시 대기질 개선과 같은 아이디어는 실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전문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어 앞으로의 연구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대토론회 개최 전에 아이디어를 미리 접수하고 이를 토의하여 실제 토론회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우리나라 기초연구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같이 국민전체를 수요자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더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FOCUS 2.

창의적인 연구인재 양성



IMPORTANCE OF TOPIC

성별, 지역별, 고용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연구지원 불균형은 다양한 학문의 발전 가능성과 우수한 연구 인력의 활용도를 저해합니다. 더 많은 연구자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단절에 놓인 인재의 사회복귀를 돕는 일은 축적된 지식이 국민 삶을 제고하도록 하는 기회입니다. 창의적인 연구자는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기다릴 줄 아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배출됩니다.

NRF APPROACH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은 한국연구재단의 미션입니다. 연구자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연구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연구자가 연구활동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정책을 실시합니다. 취업에 유리하지 않아 후속세대 감소를 겪고 있는 학문분야는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연구인력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과제가 선정되지 않아 연구 공백을 겪게되는 연구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ISSU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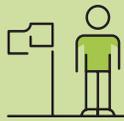
생애주기별 R&D일자리 창출



일자리

- 대학 실험실 중심 창업 지원
- 학문후속세대 지원요건 완화
- 여성연구인력 연구단절 방지
- 고경력연구자 ODA사업 연계

대학생 창업 기업 수
26.2% 증가



출산·육아 연구연장
최대 2년



여성 과기인 연구복귀
420명



ISSUE 2.

배려가 필요한 연구자 지원



기회제공

- 보호학문 지원연구비 확대
- 신진연구자 최초혁신실험실 지원
- 과제탈락 연구자 안전망 구축

보호·소외과제 지원
189개



최초혁신실험실
348명 지원



기본연구비로
연구단절 방지
연구자 **52.4%** 단절 경험



ISSU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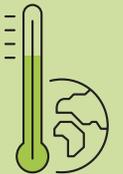
글로벌 연구인력 양성



공공성 강화

- 근접국가 협업연구 발굴
- GRC 본회의 공동개최
-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2018 GRC 본회의 개최
48개국
해외주요연구기관
참여



글로벌박사 인력 양성
958명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75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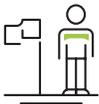


좋은 일자리 창출

한국연구재단은 핵심 사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2017년도 연구인력, IT업계 종사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R&D 일자리 6,993개를 창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개발 일자리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중장기 전략과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일자리 7,807개를 창출하였습니다.

(공공) 직접고용 100% 실현

정규직 전환 절차 만족도 **4.11점**



(민간)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109.2% 달성



(확산) 사례 발표(대통령 주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좋은 일자리 창출 체계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연구개발 일자리 50,000개의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더하기', '일자리 질 향상', '일자리 플랫폼 조성'의 3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연구자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2018년도 일자리 목표치의 109.2%를 달성하였고 공공부문에서는 재단 내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장기 전략>

지표 비전	좋은 일자리(New Decent Job)로 연구자(Researcher)와 함께 더 나은 미래(Future)로		
지표 목표	R&D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민간 부문 일자리 50,000명 이상 창출		
중장기 로드맵	2018 일자리 생태계 조성	2019-2020 일자리 플랫폼 구축	2021-2022 일자리 창출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 사업 확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선순환 생태계 구축 비정규직 Zero 달성(질 개선)
전략방향	일자리 더하기	일자리 질 향상	일자리 플랫폼 조성
추진과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 청년, 학문후속세대, 여성, 고경력 지역사회 간접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신규 채용규모 지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구축 고용친화적 지표·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성과 확산

2018년 민간부문 R&D 일자리 7,807개 창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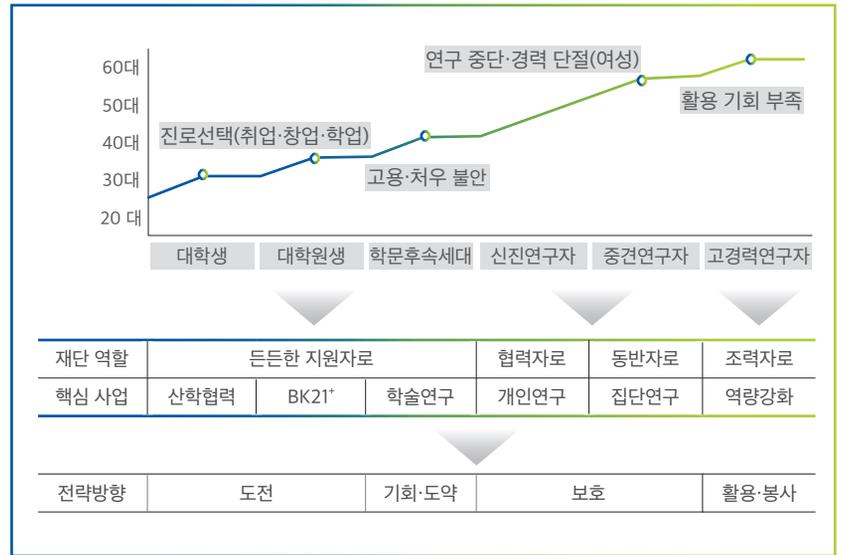
7,807명



연구자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사업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R&D 분야 취·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학문후속세대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시기를 맞이한 여성 연구자에게는 보호의 시각으로 접근하여 고급연구인력이 연구의 중단을 겪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은퇴한 고경력 연구자에게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애주기별 핵심사업>



*BK21(Brain Korea 21): 두뇌한국 지원사업



2018년 산학협력 엑스포 개회식

<일자리 창출 사업 실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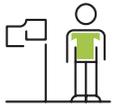
전략 방향	사업명	'17년(A)	'18년(B)	증감(B-A)
도전	지역신사업선도인력양성사업 등 2개	90	443	353
기회·도약	BK21+사업 등 13개 사업	6,460	6,592	132
보호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사업	324	420	96
활용·봉사	WFK-TPC 파견지원사업 등 2개	22	259	237
아웃소싱	학술지평가 및 학술활동지원사업 등 2개	97	93	△ 4
합계		6,993	7,807	814

연구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포용적 연구기회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 대상 간담회, 설문조사, 정책연구 등을 통해 연구자의 일자리 수요와 장애물을 분석하고 지원 사업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재단은 지원자, 협력자, 동행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연구 인력에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학생 창업 기업 수

26.2% 증가(전년대비)



도전하는 미래세대에게 가능성을 활짝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의 산업 별 직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고도화하여 지역 학생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2018년도에는 청년 실업률 감소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3종의 청년 고용 친화형 제도를 신설하여 정부 R&D 참여 기업에 청년 채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채용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험실 중심의 창업 지원, 창업교육 제공 및 창업에 따른 대체학점 인정 등 창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도전을 지원하였습니다.

학문후속세대 일자리 창출

6,336명 (행정인력 제외)



도약하는 청년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 지원

청년연구자와 박사후 연구자 등 학문후속세대 연구인력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학위취득 후 취업이 불안정하다는 점과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청년 연구자의 전임 임용과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학문후속세대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성과 연구현장 조기 정착을 지원합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연수기간을 두배로 늘려 청년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문후속세대 일자리 확대 위한 제도 변경>

구분	2017년	2018년	효과
대상요건 완화	학위취득 후 5년	학위취득 후 7년	임용기간 장기화 현실 고려
지급단가 상향	40백만원	45백만원	현실성 고려한 처우 개선
연수기간 연장	1년	1~2년 (1+1)	안정적 연구 활동기간 조성
연구기회 확대	기관당 3명 추천	기관당 5명 추천	일자리 참여 확대
신청요건 완화	경력 최근 3년 이내	경력 최근 5년 이내	연구 기회 확대

퇴직과학기술인 일자리 창출

259명



제2의 커리어에 도전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퇴직을 맞이하는 연구자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했음에도 낮은 활용도로 인해 전문성이 사장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공적 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여 제2의 커리어에 도전하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은퇴 후 인생을 설계하도록 지원합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해와 축적된 연구 경험 간의 연계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2018년에는 ODA 교육을 확대하고 특화과정을 신설하였으며, 126명의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정기관 선정



여성 임신·육아 시 연구기간 연장

16 건



경력단절 여성과기인 복귀

420명



2017

324명

2018

420명

연구와 삶을 병행하는 여성연구자 지원

한국연구재단은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여 2017년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에서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여성연구자, 특히 연구단절을 겪고 있는 30대 및 40대 연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지하고 모성보호 정책 수립을 통한 여성연구인력의 사회진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연구 분야의 여성연구자 지원을 인문사회연구 분야를 포함한 전 학문으로 확산하여 저출산 극복과 고급여성인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연구기간 연장

임신 및 육아로 인해 연구중단의 위기를 겪는 여성연구자를 배려하고자 인문사회 연구분야와 이·공학 연구분야 모두에서 최대 2년까지 연구기간 연장을 허용합니다. 2018년에는 임신 및 육아에 따른 총 16건의 연구기간 연장제도 수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해당 제도를 재단의 지원 사업 전체에 확대 적용하여 여성연구자의 연구 지속성을 확보하고 성평등을 고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과학자 선정목표제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 분야 여성연구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 연구지원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고자 여성과학자의 연구선정비 비율을 20%대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20% 이상의 중견 여성연구자 비율을 유지하였습니다. 인문사회연구 분야에도 이를 확대하여 신규과제 선정 시 동일 조건일 경우 여성연구자를 우대하여 여성연구인력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경력단절 해소

과학기술분야의 약 98%가 육아휴직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약 30만명의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재단은 143개 유관기관의 여성과기인 담당자와 협력하여 여성전문인력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7% 이상의 여성과학자가 재취업에 성공하고 이 중 85%가 꾸준한 연구활동을 유지하였습니다. 재단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연구복귀 지원모델은 2018년도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7대 대표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연구자 지원

한국연구재단은 소외학문을 보호하고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연구자 계층에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성이 숨쉬는 연구생태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호·소외학문 지원

189 개



2017 119개

2018 189개

보호·소외학문 연구자 지원

보호·소외 학문이란 학문후속세대의 유입이 감소하는 분야로 국가 차원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이공기초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보호분야를 지정하는 기존의 방식을 전환하여 2018년부터는 연구자 스스로 보호분야를 발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유연성과 탄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전문위원 그룹이 연구동향 분석 및 추천을 통해 소외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2018년도 선정된 주제는 92.6점의 적정성을 평가받았습니다.

<소외분야 과제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추진 내용	사회적 가치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기반 지원으로 소외분야 외면 및 공백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공) 보호연구 예산 확대 및 중견연구 내 지원 시설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5%, 신진 중견 3%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외분야 지원 확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17</th> <th>2018</th> </tr> </thead> <tbody> <tr> <td>이공기초</td> <td>33과제</td> <td>85과제</td> </tr> <tr> <td>인문사회</td> <td>86과제</td> <td>104과제</td> </tr> </tbody> </table>	구분	2017	2018	이공기초	33과제	85과제	인문사회	86과제	104과제
구분	2017	2018									
이공기초	33과제	85과제									
인문사회	86과제	104과제									

신진연구자

348명 최초혁신실험실 지원



신진연구자 지원

2017년 조사된 바에 따르면 신진연구자와 중견연구자의 연평균 연구비는 5천만원 이상의 격차를 보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창의적이고 연구의욕이 높은 신진연구자가 임용 초기 실험실을 조기 구축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1년간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비를 추가 지원하는 최초 혁신 실험실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만39세 이하 연구과제 수혜 경험이 없는 연구자를 지원하는 생애 첫 연구 지원 사업의 자격조건을 확대하여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라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과제탈락 연구자를 위한 기본적 지원

지난 5년간 조사된 바에 따르면 연구자의 52.4%는 개인연구 수행 후 연구단절을 경험하였으며 1년 이상의 공백기를 가지는 연구자는 48.9%에 육박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연구 탈락 시 최소한의 기본연구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우수연구 실적이 있으나 신규과제에 선정되지 않은 연구자에 재도약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연구가 단절된 이공분야 전임 연구원에게는 풀뿌리 중심 소규모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글로벌 연구 인력 양성

한국연구재단은 세계 연구자와의 과학기술분야 협업으로 근접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의 문제해결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글로벌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문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국제적 수준의 포럼을 개최하는 등 연구자의 세계적 네트워크 강화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근접국가 공통문제 해결 노력

한국연구재단은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연구자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변화 연구를 중국과 공동 지원하여 근접국가 연구자 간의 협업기회를 창출하였습니다.

ODA 사업

캄보디아 총리 감사장 수여



과학기술 지원을 통한 ODA 사업 선도

재단은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연구의 글로벌 리더로 역할합니다. 개발도상국 현지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조를 목표로 2018년 캄보디아 내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과 편리한 컴퓨터 활용 환경을 구축해 캄보디아 총리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과학기술 ODA 사업 현황>

구분	국제협력선도대학	적정기술센터	WFK*과학기술지원단
지원과제	12과제	5개소	48명
분야/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공학(라오스) 화학교육(인도네시아) 환경보전(우즈베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라오스) 에너지(네팔, 탄자니아) 물(에티오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 화학공학, 전기 등 과학기술분야 (14국 32기관 파견)

*WFK(World Friends Korea): 월드프렌즈코리아

2018 GRC

48개국 해외주요연구기관 참여



Global Research Council 본 회의 개최

재단은 2018년도 세계 연구지원기관 협의회(Global Research Council)의 본 회의를 러시아와 공동 개최하여 글로벌 연구지원 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미국 NSF와 독일 DFG 등 해외 주요 연구지원기관이 참여한 본 회의에서 재단은 특별히 NRF Capacity Building 워크숍을 개최해 개발도상국 협력체계를 세계와 공유하였습니다.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대학원생 75명 지원



글로벌박사 인력 양성

재단은 우수한 대학원생을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박사 인력으로 양성하는 글로벌 박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문 연구 계획서 작성 및 외국어 발표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연차 점검과 단계 평가를 통해 우수한 대학원생의 내실 있는 연구 및 학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성과자를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와 해외학회의 참여 기회를 두 배로 확대하여 국제 연구 역량을 갖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NRF IMPACT 2.

여 성 연 구 인 력 육 성

여성연구원 육성 및 사회복귀 지원

[여성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 맞춤 지원]



여성 과학기술인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여성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

창의성과 정밀함을 요구하는 연구·산업계 분야에서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약 30만명에 이르는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참여 확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인력 활용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경력 관리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극복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은 여성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별 진로경력 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공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전공분야에 대한 취·창업을 지원하였으며, 공학분야 직업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로 진출 정보 또한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약 17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R&D 경력복귀와 취업중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순환

한국연구재단은 여성 과학기술인의 R&D 경력복귀 사업을 통하여 총 420명의 재취업을 지원하였고 85%의 연구활동지속률을 달성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도왔습니다. 향후 재단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여성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 성과도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경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INTERVIEW 2.

“여성연구자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요”

R&D 경력복귀 [SAP코리아 한국연구소 맹선영 연구원]



IT분야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9년 전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심하게 아파 육아휴직과 가족 병가 사용에도 회사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로 아이는 제가 없으면 주사조차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고 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IT 분야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경력의 공백기를 가진 후 업무 복귀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전공과 경력에 맞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매칭 프로그램과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사업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연구 현장에서 이탈한 연구인력의 사회 복귀를 도울 뿐 아니라 업무에 수월하게 적응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여성연구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속 기관이나 회사에서 어떠한 활동을 지원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회사 생활 외에도 관심 분야에 대한 학회 활동, 세미나 참석 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만족합니다.

여성연구자 지원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여성연구자 스스로가 자신감과 책무성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인터뷰는 NRF Webzine 2018년 11월호 '노정혜 이사장과 여성과학기술인 특별대담'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FOCUS 3.

공공가치를 높이는 연구기반 조성



IMPORTANCE OF TOPIC

연구현장은 과도한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과 비전문분야 심사위원에 의한 부실한 평가에 대한 고충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과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지표가 요구되는 배경입니다. 더불어 목표 달성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존 평가 방식에 대한 한계점과 이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NRF APPROACH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의 몰입을 방해하는 오래된 관행을 탈피하여 연구행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을 높입니다.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제거하고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는 최첨단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목표 성과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평가제도와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사업을 병행하는 등 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ISSUE 1.

연구자 중심 연구비 지원



- 연구시작 전 연구비 지급
- 연구비 입금 실시간 알림
- 인공지능 상담서비스 실시

연구자
회계서비스
만족
93.7점



12개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이지바로 구축



ISSUE 2.

연구자 행복 서비스 혁신



- 연구행정 간소화 절차 추진
- 연구과제변경 허용
- 인문사회 지원사업 매뉴얼 발간

연구방법 자율기획
60.6%까지 확대



MOVING TARGET

목표수정제도
최초 시행



한눈에 보는
**연구관리
종합매뉴얼 발간**



ISSUE 3.

전문적인 연구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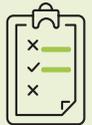


- PM 인력 확대 지원
- 과정보준 질적평가 도입
- 세계 최초 빅데이터 기반 연구관리

평가에 대한 이익제기 감소
203 건('17년) ▶
182 건('18년)



실패용인
**연구잠재력
평가체계 도입**



4차산업혁명 대응
연구지원 선도



연구자 중심 연구비 지원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과 질적 성과를 제고하고자 연구자의 과도한 연구행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계획서 및 정산제도를 간소화함으로써 연구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창의적 연구 환경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연구비 사전 지급

국내 최초



국내 최초 연구비 사전 지급

촉박한 연구 일정으로 인한 연구 평가의 질적 수준 저하와 연구비 지급 지연에 따른 불편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연구개시일 이전에 연구비를 사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2018년도 3월에 개시하는 신진 및 중견 연구의 지원금을 2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연구비 적시 지급과 충분한 평가 일정 확보로 연구진행을 원활히 하고 연구자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
회계서비스 만족도

93.7 점



연구비 입금정보 실시간 제공

연구기관 담당자는 연구비 입금여부를 일일이 유선으로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사업통합지원(e-R&D)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실시간 연구비 지급확인서와 입금 알림을 제공합니다. 2018년 실시한 회계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두 9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019년 기획재정부

10대 혁신 과제 선정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현장은 평균 7.5개 부처에 개별적으로 연구비를 입력하고 승인받는 과정으로 행정 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지바로(Ezbaro) TF를 신설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의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획재정부 10대 혁신과제로 선정된 이지바로 시스템은 연구비 이종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허위증빙을 감시하는 효과도 함께 거두었습니다. 재단은 2020년까지 이지바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연구자 50만명에 대한 연구비 집행을 표준화하고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연구비 관리수준 B등급 이상 비율

46%('17) ⇒ 60%('18)



연구비 관리 교육 강화

연구기관 관리자의 빈번한 교체와 상대적으로 적은 경험으로 연구비 관리 전문성의 저하가 우려되었습니다. 재단은 2017년도 29회 제공하던 연구비 정산 교육을 2018년도 42회로 확대 실시하고 취약기관 컨설팅을 제공하여 93.1점의 만족도를 거두었습니다.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대학을 포함한 전반적인 연구비 관리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연구자 행복 서비스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프스 TF(R&D 프로세스 혁신 TF)를 운영하여 기술개발 전 과정에 걸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알프스 TF를 총괄 지원하고 이를 재단의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방해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여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연구방법 자율기획 과제

6.5% ⇒ 60.6% 확대



연구행정 간소화를 통한 창의적 연구 기반 마련

연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과제제안서 구성을 보완하여 다양한 연구자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집단연구 계획서의 분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연차별 협약을 다년도 협약으로 전환하여 매년 정해진 연구비와 진도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연구방법 자율기획 과제를 6.5%에서 60.6%로 대폭 확대하여 창의성을 보장하고 기획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변경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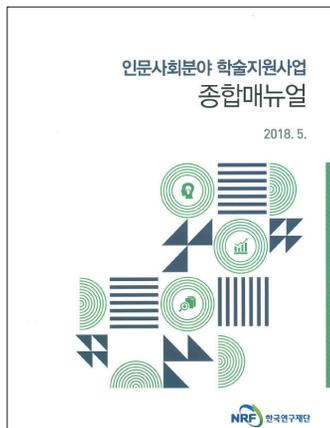
기존에는 연구개시 이후 연구의 주제와 목표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2018년부터 평가위원회의 동의 를 거쳐 과제를 변경할 수 있는 목표수정제도(Moving Target)를 도입하였습니다. 한 예로 감염자 감소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지카·뎅기·치쿤구니아 바이러스 연구로 목표수정을 허용하여 연구수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한 눈에 보는 종합매뉴얼 발간

인문사회분야 연구를 희망하는 이들은 학술지원사업의 방대한 내용과 업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분산된 자료를 집대성하여 한 눈에 보는 종합매뉴얼을 발간하고 사업구조의 변천사뿐 아니라 연구지원 신청자격, 지원 규모 및 기간, 평가 관련 변경내역, 지원 선정률 등을 담았습니다. 재단은 연구자들의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줄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 입니다.

연구수행 체크리스트 제작 및 배포

2018년도 실시한 연구자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 관련 규정과 연구비 집행의 복잡함이 지적되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과제신청부터 정산 단계까지 전 주기에서 연구자가 유의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인건 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의 규정을 포함하며 타 과제 검색 및 중복성 여부 검토 방법 등 자주 질의하는 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연구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내실있는 평가체계 구축

한국연구재단은 획일적인 평가가 아닌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평가 체계를 다양화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활성화합니다. 세계 최초 빅데이터 지능형 연구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 6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182 건(2017년도 203건)



PM제도 개선을 통한 전문 평가 역량 강화

한국연구재단은 PM(Project Manager)제도를 두어 분야별 전문가가 전 주기적인 연구 관리를 수행하고 연구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합니다. 출범 당시에 비해 PM 1인당 관리해야 할 과제의 수가 3배가량 늘어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도에는 PM인력을 대폭 증원하였습니다. PM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로 연구평가에 대한 연구자의 이의제기가 감소하였습니다.

최종평가 제외 기준 연구비

1.5억 이하 ⇒ 3억원 이하로 확대



과정 중심 평가 강조

한국연구재단은 장기적 성과를 추구하고자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5등급제로 평가하던 기존 체제를 연구 수행 과정에 따라 3등급제로 평가하는 성실수행 평가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초연구의 경우 단기간에 직접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성공 또는 실패의 이분법적 판정을 폐지하고 중견연구 중 3억원 이하의 과제는 최종평가 단계를 면제함으로써 형식적인 성과 추구를 지양하고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질적평가에 따른 연구현장 만족도

90.5 점



질적 평가 비중 확대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는 연구자들의 의지와 노력만이 아닌 평가 방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합니다. 사회과학분야의 대표적 집단사업인 SSK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특수한 목표로 수행되는 대형 연구 사업이라는 점에서 타 연구와는 구별되는 평가체계가 요구됩니다. 정량적 연구평가 방식이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맹목적인 실적 부풀리기를 조장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도에는 정성적 평가에 65%의 비중을 두어 질적 평가를 시도하였습니다. 연구 현장은 달라진 평가 방식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재단은 HK+사업에도 이를 적용해 질적 평가의 비중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SGER 연구 규모 확대 필요하다"

연구자 88.6%



신선한 아이디어 발현을 위한 연구자 도전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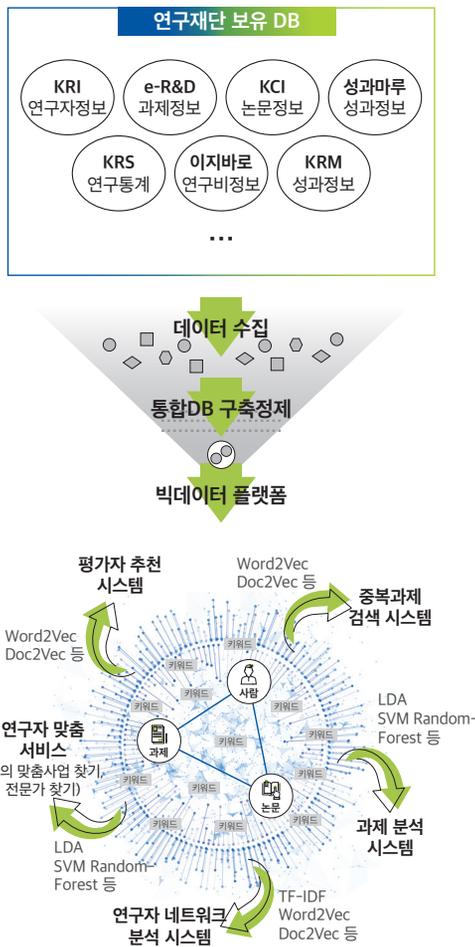
SGER(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연구란 소규모 탐색적 연구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실패 위험이 높은 연구를 의미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실험적인 연구에 기존 평가와는 구별되는 체계를 운용하여 실패를 용인하고 연구 잠재력을 위주로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전년도에는 상대평가에 의해 상위 50%의 과제만 계속 지원하였던 반면 2018년도에는 절대평가에 통과한 79.4%의 과제가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연구 키워드 유사도

0.1 점(17) ⇒ 0.53 점(18) 달성



빅데이터 플랫폼 핵심서비스 구성도



미래기술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실시

한국연구재단은 세계 최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지능형 연구지원 플랫폼 사업의 1차년도로 키워드 기반 평가자 추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후보자 추천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내용 및 키워드와 부합하는 평가 후보자를 자동 추천하여, 연구분야와 평가자의 단순 매핑으로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던 기존 평가 방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평가후보자의 67.5%를 키워드 추천 방식으로 선정하였으며 심사자 추천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73점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재단은 보유한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트렌드 분석, 미래유망분야 예측, 중복과제 예측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능형 연구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로드맵>

연구자	평가자 추천위원	한국연구재단	정부
연구의 방향성 결정, 우수연구자 조회 등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정보 지속적 요구	최적의 평가후보자 추천 환경 조성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 및 효율성 요구	정밀 연구 트렌드 분석을 통해 사업기획 등 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 상시 요구	R&D 지원 정책 및 기술 성숙도 분석을 통한 균형적 정책 수립 환경 요구

e-R&D	KRI	KCI	KRM	이지바로
과제/협약정보 DB	연구자 DB	논문 DB	연구산출물 DB	연구비사용 DB

2018년	2019-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자 추천 서비스 유사 중복과제 검색 서비스 과제분석 및 협업·맞춤형 서비스 통합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 R&D 트렌드 분석 서비스 지능형 연구통계 서비스 통합 DB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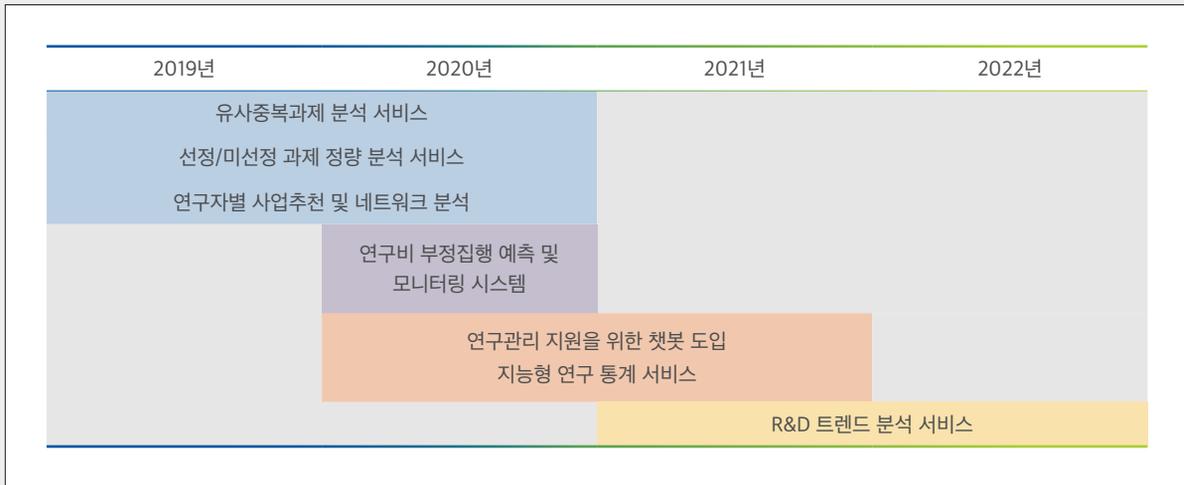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연구지원 플랫폼

NRF IMPACT 3.

지능형 연구 지원 체계 구축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반 연구지원 서비스

[미래의 연구지원·관리 서비스]



지능형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

연구지원 플랫폼의 구축 전략

연구지원은 연구자와 정책고객, 재단의 내부직원 등 다양한 참여자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의 필요와 요구는 다양합니다. 연구자는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연구정보나 연구동료가 필요합니다. 재단과 정책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연구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요구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정보화전략계획은 인공지능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평가자 추천시스템과 연구지원 통합 DB의 성공적 정착

2018년은 혁신적 연구지원업무 시스템의 토대를 구축하는 한 해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연구 평가위원을 탐색하고 과제에 매칭하는 평가자 추천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시도로, 기존 연구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전문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내부 DB를 통합하여 연간 약 15억 개에 달하는 연구지원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비스와 혁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연구지원의 미래

한국연구재단은 R&D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부터 연구자 상담 업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와 빅데이터 등의 혁신기술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 물입을 촉진하고 내부 직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연구자의 성공적 연구와 국가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INTERVIEW 3.

“연구자를 편리하게 연구비를 투명하게”

한국연구재단 이지바로 TF [안성용 부연구위원]



이지바로TF에서는 정부 국정과제인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계획에 따라 12개 부처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과기정통부의 Ezbaro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단일화를 위한 통합Ezbaro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현장에서는 연구비의 집행·정산 자료를 과제가 속한 각 부처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각각 입력해야 하며 연구비 집행 항목과 처리 절차도 상이하여 연구비 집행 및 관리의 혼란 등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통합Ezbaro 시스템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부처 산하 12개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연구비 부당집행 사전 예방, 연구비 집행 통계·지표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정책 구현 등 선진화된 연구비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9년 9월에 협약과 집행 업무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2월에는 정산 기능까지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폐지와 연구비 관리를 위한 증빙자료의 간소화 등 연구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비 관리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20조원의 국가연구개발 예산 중 5조원 이상을 집행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입니다. 따라서 재단의 사회적 책임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관리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연구비 통합관리 외에도 R&D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와 포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CUS 4.

건강한 연구윤리 확산



IMPORTANCE OF TOPIC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는 조직의 기본입니다. 경제적, 법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준수는 외부의 감시와 내부의 견제 시스템이 적절히 기능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부실학회 논란이 불거지며 연구생태계 전반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NRF APPROACH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전체 R&D 예산의 25%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의 값진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재단 내부의 청렴도 제고와 지원 연구자의 부정행위 예방에 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에 실망감을 안겨준 일부 연구자의 부실학회 참가 실태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재단이 앞장서서 연구계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처벌적 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으로 건강하고 자율적 연구문화 정착에 집중합니다.

ISSUE 1.

인권존중 문화 정착



인권

- 직장 내 갑질 근절 교육 실시
- 대학원 연구인력 인권강화
- UNGC 인권선언 지지 및 이행

인권존중실천
336명 서약



청년연구자
2,329명
설문조사 실시



2018년
UNGC가입



ISSUE 2.

내부건제 시스템 활성화



윤리책임

- 청렴감사팀 신설
-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임직원 청렴교육 체계화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향상



고위직 48명
직무청렴계약 체결



청렴마일리지제도
5년간 지속 실시



ISSUE 3.

연구청렴도 강화



공공성 강화

- 연구윤리 자문 제공
- 반부패·청렴 네트워크 확대
- 연구부정 신고센터 운영

청렴사회 파트너십
375% 증가



연구 부정행위
신고 **26건**



인권존중 문화 정착

한국연구재단은 유엔글로벌컴팩트 가입으로 인권 경영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재단 내 인권 존중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고자 노사 공동으로 갑질 근절을 선포하고 조직문화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대학 내 연구실 문화를 개선하여 청년 연구인력의 인권을 증진하였습니다.

인권존중 실천서약

336명



인권경영 실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운데 한국연구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고자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사전 예방에 집중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익명 상담 플랫폼 및 지원 창구를 확대하였습니다. 갑질 행위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과 엄중한 형사처벌로 대응하여 신고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인권경영 교육 실시>

기관장	정규직	비정규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인권경영 포럼 참석(6.22)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NRF 노사선포식(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보호 및 갑질 근절 교육 (133명 참석) 노사공동 갑질실태 설문조사(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보호 교육(2회) 갑질예방 인권 교육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교육

연구실문화 개선 조치

갑질 근절방안 보고서 5종 발간



청년연구자 인권 개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연구실 내 인권 사각지대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경각심이 증대되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내 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청년 연구자를 보호하고자 연구실 문화를 개선하였습니다. 이공분야 석·박사 및 박사후과정에 있는 학생 총 2,32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열정페이, 고용불안, 연구윤리 위반 등의 항목을 조사하고 분석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들과 함께 '2018 청년과학자 미래 포럼'을 개최하여 청년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사회 의무 이행

한국연구재단은 2018년 유엔글로벌컴팩트(UNGC)에 가입하여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실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인권을 증진하는데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UNGC 가입은 곧 경영 활동에 있어서 인권을 지키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며 부패를 예방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방지하고자 원칙을 준수할 것을 의미합니다.

내부 견제 시스템 활성화

한국연구재단은 Clean NRF 체계를 구축하여 윤리경영의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윤리경영을 구현하고자 예방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마일리지 제도로 업무상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합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평균 이상인 8.39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고위직 직무청렴계약

총48명 체결



투명한 조직경영을 위한 거버넌스

2018년 신설된 청렴연구윤리팀과 청렴감사팀이 전사적 반부패·청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청렴도를 개선합니다. 고위직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 부패, 갑질, 성희롱 및 성폭력이 없는 '3無 원칙'을 약속하고 비위 면직자의 취업 제한 등 부패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내부 점검을 통한 방만경영 방지

재단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3단계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방만경영을 자율 점검하여 부서 내 도덕적 해이나 예산 낭비가 발생할 경우를 감시합니다. 2018년 감사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여 총 666회의 일상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 종합청렴도

2등급 향상



청렴한 업무의 생활화

재단은 임직원의 청렴한 생활을 유도하고자 청렴활동을 마일리지로 부여하고 이를 부서 평가에 활용합니다. 마일리지 반영 비율을 기존 6%에서 8%로 확대하여 청렴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직급에 따른 맞춤형 교육

인턴, 승진 후보자, 주요 간부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온·오프라인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과 더불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전 직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통합교육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임직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체계화>

구분	주요내용
신규 임용자	청렴직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5시간)
승진 후보자	공직자 행동강령, 청렴 덕목(5시간)
신규 보직 임용자	중간관리자로서의 자세 및 역할(5시간)
주요 간부	공직자 사회공헌, 청렴리더십 확립(6시간)
전 직원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2시간)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부패방지(2시간, 업무·분야별 23명)

연구청렴도 강화

한국연구재단은 청렴한 재단 경영에서 나아가 연구자를 대상으로 바른 연구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거점을 기반으로 청렴사회를 실현하고자 윤리·청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채널과 교육을 제공하며 국가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들과 청렴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8 연구윤리 포럼



연구윤리 포털 사이트

연구윤리 진단과 포럼개최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연구윤리포럼을 개최합니다. 2018년에는 연구윤리 문제가 다각도로 제기됨에 따라 '연구윤리: 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에서는 논문 표절이나 데이터 위·변조,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 등 연구 진실성의 문제와 건강한 학술 연구윤리를 위한 종합적인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연구윤리 매뉴얼 제공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윤리 포털 사이트(www.cre.or.kr)를 운영하여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주제별 가이드라인, 논문 등의 학술자료와 국내외 규정 및 지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와 관련한 교육 콘텐츠를 e-book, 웹툰,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연구자의 윤리 의식과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자는 연구윤리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고민을 상담하고 윤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한 신뢰 회복 노력

한국연구재단은 개별 기관이 다루기 어려운 연구윤리 문제에 국가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2019년부터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로 재단은 저작권, 특허권, 연구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각 기관별 연구윤리 정립을 돕고 연구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렴 네트워크의 전국적 확대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연구원, 한의학연구원과 함께 청렴클러스터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기존 클러스터에 대전 청렴네트워크와 청렴문화운동 네트워크를 신규 추가하여 정부 기관 및 시민단체까지 파트너십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재단은 청렴사회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캠페인을 벌여 보다 넓은 의미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반부패·청렴네트워크

375% 증가



연구윤리 수강생
만족도 목표치 초과 달성

101.7%



2018 청렴옴부즈맨 회의

5회 개최



연구부정행위 신고 건수

14 건('17) ⇨ 26 건('18)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한 연구자 윤리의식 제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은 연구청렴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안입니다.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은 R&D 및 BK+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학 내 인권존중과 올바른 연구문화를 위한 윤리교육과 부실 학술대회 예방을 위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연구개발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던 평가 모니터링을 35개의 재정지원사업에도 확대 적용하여 청렴한 연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청렴옴부즈맨 제도 시행

한국연구재단은 외부 감사 시스템인 청렴옴부즈맨을 운영하여 재단의 운영과 지원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받고 부패 취약분야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맨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심의하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 처리 등에 대한 개선점을 권고합니다. 2018년 청렴옴부즈맨 회의는 총 5회 개최되었으며 회의 결과 및 시정조치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청렴한 연구를 위한 다채널 신고센터

감사실 핫라인

한국연구재단은 재단 홈페이지 내 감사실 핫라인을 운영하여 임직원과 관련된 부패행위와 재단이 지원하는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통합적으로 제보 받고 있습니다. 재단 직원의 부정한 청탁, 예산 낭비, 평가사항에 대한 부정과 연구자의 연구비 부정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한편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표절, 연구데이터 위·변조, 부당한 논문저자 등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별도로 제보 받고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연구자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 부재로 발생하는 연구과제 부정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고 투명한 연구문화를 확산하고자 한국연구재단은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우편 신고가 가능하며 접수된 건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첩하여 충실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재단은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연구 부정 사례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레드 휘슬

한국연구재단의 부패 및 부정 신고 채널 중 익명 제보가 가능하도록 한 레드 휘슬 시스템은 매년 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도에는 학생 인권비 공동관리와 연구비 허위청구, 연구실 내 갑질 사태와 관련한 제보가 증가하였습니다. 감사총괄팀은 학생 연구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연구비 환수조치와 같은 강력한 후속조치로 대응하는 한편 의도치 않은 실수나 규정 위반 등을 구제하는 면책제도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NRF IMPACT 4.

연구 윤리 문제 사회적 관심 대응

부실학술활동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건강한 연구생태계를 위한 우리의 과제]



2018 연구윤리포럼

연구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하락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와 학술대회가 급증하여 연구 생태계를 해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사 학회 참여, 연구비의 사적 유용 등 건전하지 못하고 책임성이 떨어지는 연구 문화 풍토는 학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연구현장의 관행적 부정행위 근절 및 선진 연구문화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과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개최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주도할 수 있는 3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부실학회 관련 정밀조사, 연구윤리 이슈 대응체계 정비, 연구비 부정사용 원천차단 강화의 과제 아래 부실학술활동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노력할 것입니다.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 가이드 배포

한국연구재단은 재단 지원과제를 주관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 책임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권고 사항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 및 학회 참석에 앞서 연구자 스스로 건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연구재단의 지원 과제를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 또는 대회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4.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 신뢰 회복”

한국연구재단 윤리법무팀 [백승민 팀장]



윤리법무팀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부실학회 등 연구윤리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2018년 12월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운영, 연구부정사건의 조사 및 판정, 연구자 대상 연구윤리교육 실시,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연구개발 관련 법무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WASET, OMICS 등 부실학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는 전체 연구자의 약 0.3%에 불과하나, 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큰 실망과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우리 국민들은 연구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러한 믿음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부실학회로 추정되는 곳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학술활동이 재단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실학회 사태는 논문실적에 대한 연구자들의 압박, 그리고 이를 활용한 약탈적 학술출판업자의 등장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부실학회 판정에 대한 기준과 분류를 명확히 하고자 미국 NIH 성명서 등을 참조하여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단은 연구자의 연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연구관리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연구자 역시 연구비는 곧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FOCUS 5.

안전한 사회환경 기여



IMPORTANCE OF TOPIC

안전한 근로환경의 조성은 법적인 기본 의무로,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최근에는 산업재해의 범위가 확장되어 임직원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새로운 유해 인자를 발굴해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업무 특성에 적합한 환경보전 전략을 실천합니다.

NRF APPROACH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지원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안전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과제 지원을 통해 모두의 건강한 삶에 기여합니다. 재단 임직원의 근무환경과 더불어 대학 내 연구실 관리를 확대하여 연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연구현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종이 없는 회의문화를 확산하고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합니다.

ISSUE 1.

국민과 연구자 건강증진



건강·복지

- 국민건강이슈 신규과제로 선정
- 대학 내 연구실 현장검사 실시
- 미세먼지 대토론회 개최

치안·범죄
60억원
 예방연구 신규과제



대학연구실 안전수준
 우수 등급 비율
68% ▶ 85% 제고



미세먼지 R&D 예산
51억원 확보



ISSUE 2.

안전한 일터 조성



안전

- 재난대비 훈련 및 기록물관리
- 생활주변 방사선 및 석면 검사
- 정보보안 로드맵 수립

2018 기록관리
최우수등급



근무환경
 개선협의회
총4회 실시



정보보안 교육이수 1인당
5.3시간



ISSUE 3.

환경보전 책임 이행



환경

- 신재생에너지 연구과제 지원
- 전자영수증 서비스 실시
- 재단 에너지 절약 실천

환경 R&D 예산
127억원



종이영수증
 보관폐지 **136만 건**



한국연구재단 전 건물
에너지절약형
 LED조명
 전면 교체



국민과 연구자의 건강한 삶 보장

한국연구재단은 연구 지원과 기술 개발을 통해 재난 및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년 연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의 꿈을 키워가도록 안전 사각지대의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제공합니다.

국민생활문제연구

미세먼지 실시간 예보 모델 개발



연구지원을 통한 국민건강 기여

기존의 연구개발 성과가 일상의 이슈와 거리감이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 과학 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국연구재단은 건강 및 생활 밀접 연구를 국민 참여형 신규 과제로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국민생각함’과 ‘기획마루’를 통해 모아진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난 재해, 치매, 미세먼지, 치안·안전을 주제로 연구를 기획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18년도 1.2억원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 예산을 2019년도에는 51억원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민생활문제연구 핵심분야>

국민생활문제	2018 신규과제	연구비
재난 재해	다매체 기반의 멀티미디어 재난정보전달 플랫폼 개발	20억원
치매	치매 원인규명을 위한 R&D 플랫폼 구축	46.5억원
미세먼지	초저가 미세먼지 제거 필터용 활성탄소섬유 강도 제어 기술 개발	1.2억원
생활안전	범죄예방·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60억원

대학연구실 안전수준 우수 등급 비율

68%('17) ⇒ 85%('18)



청년 연구자 안전한 연구실 조성

한국연구재단은 청년연구자들의 안전한 연구 환경을 위하여 안전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도 420개 대상으로 진행한 대학 내 연구실 현장검사를 2018년도 471건으로 확대 실시하고 안전관리 표준교재와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여 안전한 실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연구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조사반을 즉각 파견하고 사례를 공유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전파합니다. 2018년도 연구실 안전사고는 20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59건 감소하였습니다.

연구실 사망사고

5건('11) ⇒ 0건('12~'18) 달성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체계 >

구분	추진 배경	추진 내용	성과
안전정보 DB 구축	실험 전 유해인자의 사전파악을 통해 사고예방 대비 필요	유해·위험 인자별 안전정보 DB 구축 - 표준작업절차서 (SOP)기반 총 1,860종 안전정보 생산	사망사고 ZERO화
LMO* 안전관리	시험·연구용 LMO에 대한 안전우려 제기	LMO 안전관리 검사·현장지도 - 48개 대학 점검 및 123건 지도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한 일터 조성

한국연구재단은 재단 내 임직원과 이용 고객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재단의 생활공간을 개선하고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주요 기록물의 상실을 최소화하는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은 별도 지원을 통해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대응훈련

총18회 실시



2018 기록관리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생활 유해물질

ZERO 달성



재난안전 대응체계

재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상황을 기반으로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합니다. 비상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피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대응

2017년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기록관리 평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록물에 대한 지속적 보존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 받았습니다. 재단은 지적 사항을 보완하고자 중요기록물을 안전하게 반출하고 보존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우선순위를 두고 이관해야 할 중요 기록물을 선별하고 기록물에 대한 전담 대피 인력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년도 실시한 기록물관리 기관평가에서 91점을 획득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 평균 78.9점 대비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안전한 근무·생활공간

재단은 2018년도 근무환경개선협의회를 신설하여 분기별 회의를 통해 임직원들의 업무 환경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합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력하여 임직원 사용이 많은 연구관 대강당과 재단 내 북카페, 여성 휴게실 등에서 생활방사선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공간 모두에서 허용 범위 이내의 방사선량이 검출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철거 작업을 실시하여 2018년도 재단 전 건물 대상 무석면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재단은 건강한 일터를 구현하고자 임직원의 스트레스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연구자의 민원을 처리하는 연구상담센터 근로자 14명을 대상으로 우울과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고 필요 시 치료과정으로 연계하였으며 민원인 상황유형별 대응매뉴얼을 발간하여 과도한 감정 노동에서 상담원을 보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연구보안 교육

1인당 **5.3시간** 이수

정보보안 관리 체계 수립

한국연구재단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재단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담아 정보보안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보유출 및 사이버 침해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과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보안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교육 참여 결과를 조직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55점, 2020년도 65점, 2021년부터는 80점 이상을 목표로 단계적인 보안 강화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보보안 중장기 로드맵>

2018년	2019-2020년	2021-2022년
관리체계 수립	관리체계 체계화	관리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안 교육체계 확립 전담조직·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망·인터넷 망 분리 침해사고·재해·재난 대응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시스템 보안인증 획득 전담인력의 전문화

<개선실적 및 과제>

구분	2017년 지적사항	2018년 개선사항	2021년 목표
보안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조직 부재 정보보안 예산 15%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안팀 신설 정보보안 예산 15.24%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완료)
전자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DB 민감정보 평문 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완료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파쇄기 도입으로 정보시스템 폐기절차 준수 CCTV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강화
사이버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 현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정보보안 수칙 숙지 및 이해도 제고 위한 교육 제공 전문용역관리시스템 도입
시스템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망 분리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망 분리 예산 15억원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망 분리 추진 예산 확보 (완료) 가상사설망 OTP 도입 시스템관리자 망 분리

2018년 사이버보안

98.66% 안전

(전년대비 2.2%p 상승)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재단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약 52만명의 연구자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이버 침해의 취약성을 사전 제거하고자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전 임직원 PC를 정기 진단합니다. 재단 내 업무용 PC 안전도는 98% 이상으로 회원정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점검에서 적발사항 0건을 달성하였으며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보안교육 및 생활수칙 홍보 등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책임 이행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모든 분야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지원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일상 속 친환경 업무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R&D 예산확대

127.7 억 원 → 171 억 원
(‘18) (‘19)



종이영수증 폐지에 따른 사회적 경제 비용

70.8억 원 절감



한국연구재단 전 건물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eq)



연구지원을 통한 환경이슈 해결 노력

재단은 태양전지와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합니다. 미세먼지와 녹조 등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를 완화하고자 2019년도 환경 관련 R&D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기존 관행을 폐지하고 이지바로 시스템을 통해 연구비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전자영수증 서비스 전환은 연구자의 행정을 간소화하고 연간 136만 건에 이르던 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하여 환경 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재단 내 친환경 생활 실천

재단은 친환경을 위한 실천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청사와 서울청사 사무공간의 조명을 에너지 절약형 LED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

구분	추진 실적
1회용품 사용 줄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회의 시, 개인 컵 및 텀블러 사용 운동(플라스틱 제로 실천) 평가 및 행사 시, 비치물품(페트 생수병, 컵, 접시 등 1회용품 구매 자제) 손 닦고 종이타월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 실천 활동 우천 시 우산 빗물제거지 구매·활용(1회용 비닐 커버 대체)
재활용품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perless(종이없는) 회의 추진(2017년부터 지속) 월간, 주간 회의 시 출력물 대신 태블릿 PC 활용(참석자 전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비치(3종류)로 재활용 활성화

지역사회 환경보호

대청댐 정화활동 등 노사공동 대전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단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지식 나눔 활동인 '금요일에 과학터치' 프로그램에 환경 주제를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NRF IMPACT 5.

건강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청년연구자 안전환경 및 인권문제 개선

[청년과학자가 미래다]



2018 청년과학자 미래 포럼 개최

연구실 내 문제 개선의 필요성 인식

국내 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갈 대학 및 대학원의 청년연구자들이 연구실 내 미흡한 안전관리체계와 지도교수의 갑질로 인한 인권문제들로 여러가지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청년연구자들이 오롯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실 인권 및 안전 사각지대 그리고 열정페이와 연구윤리 위반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연구실 안전교육 확대와 갑질 근절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연구현장의 안전문화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해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작년 한해 38만명 이상이 연구실 안전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실 내 만연한 갑질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 청년과학자 미래포럼을 개최하여 그들의 의견과 고민거리를 듣고, 이를 언론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청년과학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경각심을 제고하였습니다.

안전수준 개선 및 인권 개선방안의 정책 반영

건강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대학연구실 안전관리 우수등급이 전년도 대비 17%p 증가한 85%를 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갑질 근절방안 보고서 5종을 발간하고 청년연구자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을 국가정책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연구여건이 취약한 연구실의 환경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 내 연구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INTERVIEW 5.

“안전한 환경에서 미래 인재가 꿈꾼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노영희 본부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15년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하고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실 안전관리와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사업을 위탁받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내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와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LMO는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서 연구자 안전 외에도 생물 및 환경보전, 일반국민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학 내 안전한 연구실 환경은 각 기관 상위관리자의 관심과 확고한 안전 의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안전 의식 부재로 위험에 노출된 채 실험활동을 하고 있으며 젊은 연구자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019년도에는 현장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고자 연구환경 위험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 DB와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LMS)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환경의 변화로 연구실 내의 유해·위험 요인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어 법규와 기술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실 인력 뿐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연구실 및 LMO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도 과학기술발전에 매진하는 연구자의 미래 과학기술계의 인재 보호를 위하여 사고예방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FOCUS 6.

지역사회 동행



IMPORTANCE OF TOPIC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지역민과의 의견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및 사회에 기여합니다. 단발성의 임직원 봉사활동 차원을 넘어 지역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사회공헌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NRF APPROACH

한국연구재단은 기관이 위치한 대전지역의 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합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의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간 통합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합니다.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식 나눔 활동으로 매주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지식 선순환의 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ISSUE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참여·소통

- 대전지역 현안해결 거버넌스 구축
- 관·학·연 토론회 개최
- 지역사회 가치창출 인문도시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관·학·연 토론회 개최



대전지역
협업모델

PLUS 구축



ISSUE 2.

중소기업 동반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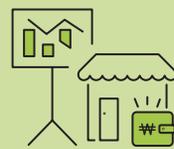
지역경제

- 연구비 정산·관리 재능기부 실시
-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대책

공공기관 최초 협력업체 상생 결제방식 시행



협력사 수수료부담
41백만원 절감



ISSUE 3.

과학 인재육성



지역사회

- 자발적 모금 사회공헌 자원확보
- 매주 대국민 지식나눔 강연활동
- 소외지역 찾아가는 멘토활동

금요일에 과학터치 219회 지식나눔 실시



2018 인문주간
화해와 상생의
인문강연 실시



Table for Two

아프리카
어린이
급식기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강화

한국연구재단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문제 해결 의제를 형성하고자 노력합니다. 공공기관 간 지역 발전을 위한 협업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고 의견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역량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체계 구축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재단의 책임과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간 재단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지역 문제에 개별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이 부족하였습니다. 재단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대학교,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 협업을 추진하고자 플러스(PLUS: Public organization, Local government, University, Small traders and enterprisers)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책무 이행의 중심점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전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플러스 모델>

구분	주체	역할 분담
P	한국연구재단	총괄
	공공기관	협업(실행)
L	대전광역시	정책 지원
U	지역 대학교	실행 주체
S	주민(소상공인)	수혜 / 의지
협업	시민단체	이슈 발굴

지역별·분야별
사회문제 능동적인
해결책 모색과
확산 모델 제시



현안해결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

대전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연구재단은 기관이 위치한 대전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2018년 관·학·연 협력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대전대학교,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소상공인 등이 함께 공동체 문제를 파악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리빙랩 추진을 논의하였습니다. 재단은 시민 주도형 지역이슈 발굴과 플러스 체계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전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관·학·연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 동반성장

한국연구재단은 지역 영세 및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대금의 결제방식을 전환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구매 비율
정부 권장 정책

100% 달성



협력업체 선금지급률

12.7%p 증가



결제방식 전환, 협력사 신용카드 수수료

연간 41백만원 감축



1사 1사회적경제기업 결연식

연구비 관리 컨설팅

재단은 정보 습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연구기관, 협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 관리, 정산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였습니다. 컨설팅과 간담회를 통해 연구현장에서 요구되는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새롭거나 놓치기 쉬운 규정 및 지침은 뉴스레터를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구매와 계약을 담당하는 재단 직원에게 상생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재단은 2018년 기준 25개의 지역 업체와 거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개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98.21%로 정부 권장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 확립

재단은 선금 최대 지급 제도로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 운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8년 기준 81.3%의 협력사에 선금을 지급하였으며 3년 연속 잔금 지급기한을 100% 준수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공정거래 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상생 결제방식

공공기관 최초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카드 수수료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로 대체하여 협력사 수수료 부담을 연간 최대 41백만원 가량 감축하였습니다. '실천은 쉽고 효과는 매우 높은' 수수료 경감 방안은 타 공공기관에 확산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협력업체 소통

소통·공감·협력 체계를 신규 구축하고 협력사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여 협력업체의 의견과 고충을 수렴하고 대전과 서울에 상생협력 담당관을 각각 지정하여 익명 건의함을 운영합니다. 2018년도 접수된 5건의 의견을 100% 반영하여 제도를 수정하였습니다.

재단 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

한국연구재단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봉사 실천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재단 구성원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기금 운영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합니다.

NRF 사회공헌활동 운영위원회 설립

한국연구재단은 '기관 미션 및 업의 특성을 반영한 행복 나눔'이라는 사회공헌 목표를 수립하고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 운영위원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경영실장, 노동조합 사무국장 및 주요 본부 사회공헌활동 대표 1인씩으로 구성되어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사회공헌 기금 확보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기금이 별도의 수입원 부재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한국연구재단은 2018년부터 복리후생 사항인 사내 커피에 대한 자발적인 모금을 실시하여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양적인 사회공헌 활동보다는 재단의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예산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기금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기금	47,037	40,944	45,130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

평균 **122명** 참석



금요일에 과학터치(부산)
'한 물리학 교수의 삶과 보람'

교육 기부 활동

금요일에 과학터치

금요일에 과학터치는 국가 R&D의 우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이해도와 공감대를 제고하고자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자발적 강연 활동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 2018년 인천을 추가하여 총 6개 지역에서 연간 200회 이상의 강연을 개최하고 강연 만족도 90점 이상을 달성하여 재단의 대표적인 교육기부 활동으로 안착하였습니다. 참석자를 대상으로 연2회 강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 실적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강연수(회)	210	224	219
참석자(명)	22,218	26,822	26,676
평균 참석자(명)	106	120	122



강원도 고성 거진중학교
'과학의 꿈을 위한 우수 연구자의 멘토링'

2018 인문주간 10.29-11.4

화해와 상생의 인문학



인문학콘서트
'젠트리피케이션: 동네를 잃은 사람들'

즐거운 이동과학교실

한국연구재단은 과학분야의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고자 이동과학 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 프로그램이 강연 거점 외 타 지역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강원도 최북단 고성에 위치한 거진중학교에서는 글로벌박사양성 지원사업 연구자들이 일일교사로 참여하여 과학강연 및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활성화

인문주간 및 인문도시사업

재단은 인문학 활동 강조기간 인문주간을 설정하여 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연, 토론회, 공연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문학, 역사, 철학을 아우르는 공개 강좌를 통해 학계와 사회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인문학과 지역 유산의 접목을 통한 문화콘텐츠로 지역사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문도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

재단은 청년 및 지역인재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일자리위원회, 장학재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2018년 링크플러스와 링크루트 프로그램으로 산학협력 및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전년도 대비 79명의 지역 인턴을 재단 차원에서 증원 채용하였습니다.

국내외 나눔 활동

지구촌 희망 나눔 Table For Two

재단은 월회 재단 구내식당에 테이블포투 식당을 구성하여 아프리카 어린이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테이블포투 코리아재단에 자동 기부되어 2016년 기준 7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재난발생 시 자발적인 성금을 모금합니다.

지역지킴이 NRF One for N

재단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노사공동으로 실시합니다. 농촌사랑 1사3촌 활동으로 농번기에 일손을 돕고 재단 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였습니다. 1사1하천, 1사1묘, 1사1공원 지킴이 활동으로 대전시 내 탄동천과 현충원 묘역을 정화하였습니다.



직거래 장터 및 바자회 개최



나노융합팀 지역환경 정화 활동

NRF IMPACT 6.

좋은 R & D 일자리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 청년일자리와 실업률 감소 기여

[연구인력 일자리 플랫폼 강화]



부산 BEXCO에서 열린 '2018 LINC+ 페스티벌'

청년들의 구직난과 기업들의 구인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해 인력 충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연구재단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연구재단은 LINC+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이 대학에서부터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맞춤형 학과의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 수행 대학의 참여학생과 참여기업간의 연계로 조기취업까지 유도하는 링크루트(LINC+Recruit)를 통해 공개 채용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취업 문제 해결

산업체의 요구에 맞춘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협약산업체로 채용연계가 진행되었으며, 399명(취업률 71.4%)의 학생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연구재단은 LINC+ 페스티벌에서 청년 구직자와 기업의 다리역할을 함으로써 현장면접을 통해 총4명의 채용자가 선발되는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재단은 사업대학 수와 교육과정 및 예산 등을 확대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구직자와 기업의 교량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INTERVIEW 6.

“강의실 밖에서 길을 발견하다”

LINC+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자 [최재란 학생]



저는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4학년 최재란이라고 합니다. LINC+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한 지난 6개월 간의 기업 현장실습을 마치고 현재는 독일계 자동차 부품 회사인 콘티넨탈사(Continental)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간의 기업 현장실습은 강의실에서는 알 수 없었던 더 넓은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그 속에서 제가 가야할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는 진로와 취업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런 고민의 시간 속에서 LINC+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커넥티드 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피카(EPIKAR)에서 근무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인 에피카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느끼고 싶었던 저에게 최적의 기업이었습니다. 에피카의 미국과 한국 오피스에서 근무했던 6개월 동안 2018 북미 국제 오토쇼(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전시될 테슬라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nfotainment System) 제작 등 다양한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글로벌 기업인 콘티넨탈 사 입사라는 또 다른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현재 모빌리티 분야 UX 디자이너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INC+ 현장실습은 취업에 큰 도움이 된 것은 물론,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기회를 통해 자신만의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FOCUS 7.

사람중심 조직문화 조성



IMPORTANCE OF TOPIC

임직원을 존중하는 경영 방식은 지속가능한 조직의 기본이며 그 자체로 사회적 책임의 이행입니다. 임직원 개인의 행복이 기관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합리적인 보수체계와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지원합니다. 조직에 대한 내부 이해관계자의 신뢰는 외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원동력이 됩니다.

NRF APPROACH

한국연구재단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청년세대의 희망을 지키고 정의로운 사회 구축에 기여합니다. 정부의 좋은 일자리 정책에 화답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차별 없는 복리후생 제도를 보장하는 등 연구개발 분야의 사회적 가치 플랫폼이 되고자 조직 내 불평등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으로 출산과 육아의 기쁨을 공유하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삶의 균형을 맞춰갑니다.

ISSUE 1.	ISSUE 2.	ISSUE 3.	ISSUE 3.
<p>공정한 인사채용</p>	<p>차별 없는 근무 환경</p>	<p>실질적 성평등 실현</p>	<p>일·생활 균형 조성</p>
<div data-bbox="254 449 497 693">  <p>윤리책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청탁 '일벌백계' · 외부위원 입회 면접 · 청년 채용 할당제 	<div data-bbox="591 449 834 693">  <p>노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노사합의 직무급제 · 차별없는 복리후생 	<div data-bbox="931 449 1174 693">  <p>기회제공</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모성보호 보장 · 여성인재 경력관리 · 승진심사 시 여성우대 	<div data-bbox="1272 449 1514 693">  <p>노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가사용 부서평가 반영 · 수요일 정시퇴근 · 노사실무협의회기구 발족
<p>채용비리</p> <p>ZERO달성</p> <div data-bbox="419 1115 505 1234">  </div>	<p>비정규직 정규직전환</p> <p>100%</p> <div data-bbox="736 1115 849 1234">  </div>	<p>출산·육아 ONE-STOP 패키지 활용</p> <p>7배증가</p> <div data-bbox="1100 1115 1186 1234">  </div>	<p>연가사용률</p> <p>정규직 88.7%</p> <p>비정규직 90.9%</p> <div data-bbox="1430 1136 1523 1234">  </div>
<p>채용지원자만족도</p> <p>4.21점</p> <div data-bbox="399 1442 508 1561">  </div>	<p>직원공감 보수체계</p> <div data-bbox="746 1455 855 1553">  </div>	<p>가족친화 우수기관 수상</p> <div data-bbox="1087 1442 1196 1561">  </div>	<p>임직원 스트레스 관리지원</p> <div data-bbox="1410 1442 1519 1561">  </div>
<p>청년인턴</p> <p>114명 고용</p> <div data-bbox="419 1774 508 1893">  </div>	<p>차별없는 복리 후생 지원</p> <div data-bbox="736 1774 849 1893">  </div>	<p>여성관리자 비율</p> <p>20% 이상</p> <div data-bbox="1067 1774 1179 1893">  </div>	<p>워라밸 만족도</p> <p>3.96점</p> <div data-bbox="1417 1774 1529 1893">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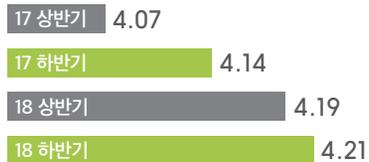
공정한 인사 채용

한국연구재단은 채용과정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의 채용비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은 가운데 공정한 인사 채용 과정을 통해 재단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채용비리 ZERO 달성

한국연구재단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지적사항 0건을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일벌백계'로 채용과 관련한 부정청탁 임직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부정합격자는 향후 5년간 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채용 전 과정에 내부감사인이 입회하며 채용서류를 영구 보존하여 추후 리스크에 대응합니다.

정규직 채용 응시자 만족도 (5점 만점)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확대

한국연구재단은 정규직 채용시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블라인드 채용을 2018년에는 인턴 및 비정규직 채용 전반에 확대하여 불필요한 정보제공과 편견을 제외하였습니다. 채용 절차 전 과정에 외부평가위원을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문에서 여성 채용 비율이 향상되고 불합격자를 포함한 전체 지원자의 응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형 단계별 내·외부 감사위원 참여>

구분	2017년				2018년			
	서류	필기	다차원	면접	서류	필기	다차원	면접
외부평가위원	미참여	해당 없음	미참여	참여	준수	해당 없음	준수	준수
내부감사인	입회	-	-	-	입회	입회	입회	입회

청년인턴 채용

69명 증가



사회적 형평성과 청년 고용

한국연구재단은 2018년도 청년, 인턴, 지역인재 각각의 채용 할당제를 설정하고 전 영역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고용을 실현하였습니다. 직접고용 외 청년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험형 인턴 76명과 대전드림 인턴 38명을 고용하였으며 이 중 4명은 인턴 근무 후 재단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근무 환경

한국연구재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100% 달성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을 실현하였습니다. 노사공동 합의를 거쳐 임직원이 공감하는 보수체계를 정비하고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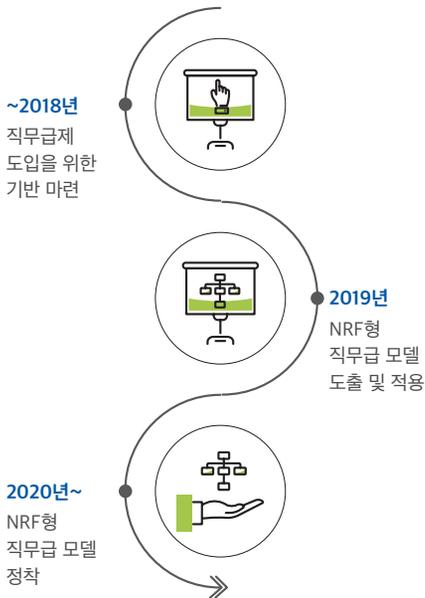
100% 달성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

한국연구재단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2017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해당 원칙을 100% 준수하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와 정규직전환협의기구를 각각 3회씩 개최하고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14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직무기반 보수체계 로드맵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 도출

기관의 보수체계는 책정기준과 고용안정성을 포괄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기존 성과연봉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재단에 적합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도출하고자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노사공동 합의를 거쳐 마련된 보수체계 개선 방안은 외부 전문 컨설팅 단계를 거쳐 직무기반 보수체계 로드맵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직원 공감 보수체계 개선안>

구분	종전					개선(안)		
	I 등급: 5단계(S~D)					I 등급: 3단계(A~C)		
성과연봉	S	A	B	C	D	A	B	C
	10%	15%	50%	15%	10%	15%	70%	15%

I S~D등급 간 지급률 2배 이상 차이 I A~C등급 간 지급률 1.4배 내외 차이

전 직원 차별 없는 복리후생 지원

한국연구재단은 2018년 자녀돌봄 시간과 난임치료 유급 휴가 등 비금전적인 복리후생 항목을 새롭게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에게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규직과 동등한 복리후생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규직과 공무원의 복리후생 지원항목>

구분	가족수당	연말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건강검진비	단체상해보험
정규직	●	●	●	●	●
공무원	●	●	●	●	●

실질적 성평등 실현

한국연구재단은 임직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남녀직원 모두에게 모성 보호 제도 활용을 장려하여 2018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여성 지도자급 인력을 육성하고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승진 심사 시 여성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2018 가족친화 우수기관 포상

단축근로 활용실적 향상

33.3%(17) ⇒ 85.7%(18)



남성 육아휴직 활용

5명



2017 2명

2018 5명

여성 임직원 대상 교육 실적 증가

91시간(17) ⇒ 265시간(18)



일·가정 양립

재단은 출산과 육아 등에 따른 전주기적 정책을 지원하여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임신-출산-육아-복직으로 이어지는 각각의 단계에 적절한 제도를 산모와 배우자 모두에게 제공하여 구성원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 해당 시기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 체계>

임신: 구성원의 배려

출산: 모두의 행복

- 임신기(12주 미만, 36주 이상) 단축근로 의무화
- 난임 휴가(인공수정, 체외수정) 확대(1일→3일)
- 연장근로 신청 시스템 차단, 전용 주차구역 운영
- 육아휴직기간 연차유급휴가 보장(확대)
- 남녀직원 모두 출산휴가 보장(남 5일, 여 90일)
- '18년 출산 여성과 배우자 휴가사용률 100%

복직: 경력 단절 방지

육아: 기쁨과 힘들음을 함께

- 복직 후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직무 적응기 확보
- 유연근무제 활용 확대('17년 162명→'18년 165명)
- 복직 직원에게 경험자와 멘토-멘티 지정·운영
- 육아휴직 신청 요건 완화(최소 1년→6개월)
- 자녀 돌봄 휴가 신설(자녀 병원 진료 등)
- 최근 3년간 육아휴직자 결원 대체율 100% 확보

<단계별 활용실적>

모성보호 제도	2017년	2018년
임신기(단축근로제)	3명(임신여성 100%)	3명(임신여성 100%)
출산기(출산휴가)	4명	9명
육아기(One-stop패키지)	1명(정규직)	7명(정규직 5명, 무기계약직 2명)
복직기(휴직 후 복귀율)	100% (여5명)	100% (여2명, 남1명)

여성인재 육성강화

한국연구재단은 여성의 경력관리를 통해 핵심 여성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여성 임직원 대상으로 이사장 주관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여성 관리자의 승진을 우대합니다. 2018년도 여성 임원 비율은 50%,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로 공공기관 평균을 크게 웃돌아 유리천장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일·생활 균형 조성

한국연구재단은 임직원의 휴식을 보장하고 개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소통하는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고충을 수렴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전 직원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

16.1일('17년) ⇨ 16.6일('18년)



일·생활 균형제도 직원만족도

3.96점 (5점 만점)



단체협약 지적사항

65% 개정



자유로운 연가사용

한국연구재단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보장하고자 연가사용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3개월 전 연가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연가 사용률 실적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여 임직원의 연가사용을 독려했습니다. 정규직의 88.7%, 비정규직의 90.9%가 연가를 사용하여 1인당 평균 16.6일의 연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한국연구재단은 임직원 개인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외부 기관과 적극 협력합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프로그램>

외부기관 협력을 통한 혜택 제공	자기계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의 전당, 제휴 휴양시설 활용 안내 무료 공연혜택 5회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동호회 1개 추가 신설 및 활동 지원 유료교육과정(81건), 학위과정(6명) 지원
정시퇴근 촉진	건강생활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사랑의 날(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유도 주52시간 근무시간 준수 사내방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스트레스 검사상담 (정신건강증진센터, 105명) 건강검진 항목 신규 추가 (선택검사 항목 확대)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

한국연구재단은 노사간 상시적 소통채널을 통해 임직원 고충을 수렴합니다.

<노사 대화·소통채널>

노사협의회(분기별 1회)	노사실무협의기구(총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충협약을 통해 단협 4개 조항 개정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노사합의서 체결(3,600시간/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공동 사회적 가치 구현 선포식 추진 논의 재단발전 TF 결과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노사실무협의회(수시)	노사간담회(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협의회 안건 사전협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추진 논의 및 상급노조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근로 이행방안 논의 노조 의견수렴 및 직원고충 해소방안 논의

NRF IMPACT 7.

임직원 스트레스 관리 및 고충 해소

지속가능한 조직을 위한 임직원 보호와 심층지원

[스트레스 실태조사 및 관리 지원]



직장인 힐링 특강 실시

근로자의 고충 및 스트레스 해결의 중요성 인식

업무 중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의 상담원들은 연구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곤 합니다. 이에 재단은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사람이 우선인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임직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충에 대한 진단 및 의견 수렴

재단 내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단은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고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대한 심층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조직 역량을 확보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힐링 특강을 개설해 2018년도 총 174시간의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명상마루 프로그램으로 매주 2회 요가 수업을 실시하여 업무 피로를 해소하고 임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증진하였습니다.

근로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감정 노동자들에게 교대 근무 및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었고 비정규직 감정 노동자 7명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한 스트레스 검사에는 총 111명이 참여하였으며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직원의 개별적이고 비공개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INTERVIEW 7.

“일·생활 균형을 지키는 재단문화”

한국연구재단 인재경영팀 [이용희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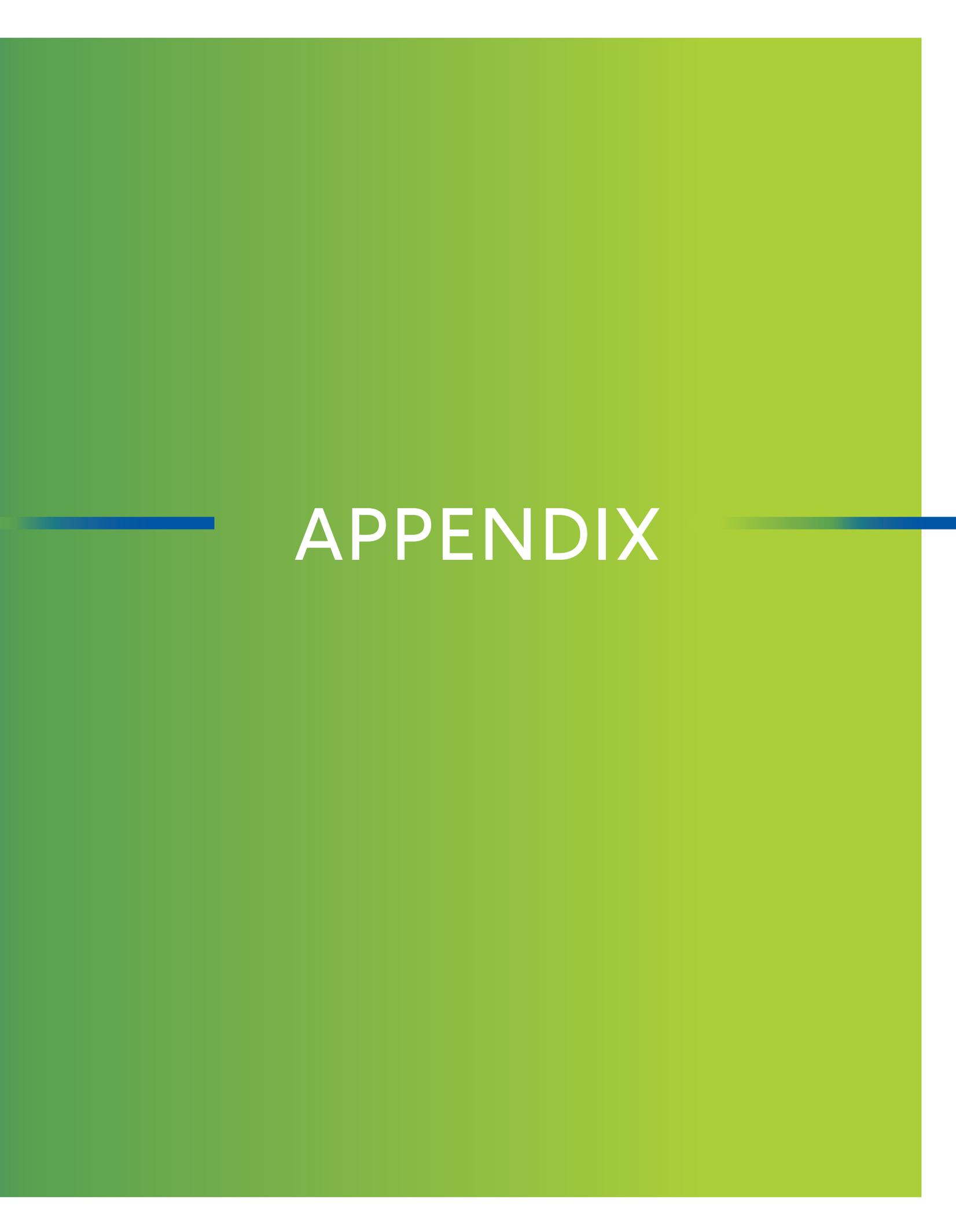
저는 인재경영팀에서 근무하며 재단 직원의 채용, 인사, 복무, 복리후생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실시한 스트레스 실태 조사 결과, 재단 임직원 70%는 업무처리 일정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뒤를 이어 과도한 업무량과 수시로 전달되는 업무가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원인으로 꼽혔으며 임직원들은 업무 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없다는 데서 가장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연구소, 연구자 등 연구현장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은 외부 고객의 민원과 정부 공무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렴하고 업무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처와 연구자 접점에서 과도한 감정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스트레스 검사, 힐링특강 및 명상(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경영팀은 스트레스 관리 외에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캠페인,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가족친화형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임직원 복지 제도의 중점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두고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 추진하여 임직원 스스로 출퇴근 시간과 요일별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8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가족친화형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우수사례를 대외적으로 확산해 나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PART 3.



APPENDIX

GRI STANDARD INDEX

공통주제(Universal Standards)							
주제	지표	공개명(Disclosure)	ISO 26000	SDGs	페이지	검증	
GRI 102: 일반보고 (General Disclosure)							
조직 프로필	102-1	조직명			12	●	
	102-2	활동 및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2-15	●	
	102-3	본사 위치			2	●	
	102-5	조직 소유 및 법적 형태			12	●	
	102-6	시장 영역			14,15	●	
	102-7	조직 규모	6.3.10/6.4.1/6.4.2/6.4.3/6.4.4/6.4.5/6.8.5/7.8		12	●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12	●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요한 변화			13	●	
	102-11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53	●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52	●	
	102-13	가입협회			 52, 94	●	
	전략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 성명	4.7/6.2/7.4.2		6,7	●
		102-15	주요 영향, 위기 및 기회			18,19	●
윤리 및 청렴성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4.4/6.3		52-55	●	
	102-17				52-55	●	
거버넌스	102-18	거버넌스 구조			16,17	●	
	102-19	권한 위임 절차			17	●	
	102-20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임원진 책임			17	●	
	102-21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			20,21	●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위원회 구성			16,17	●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16,17	●	
	102-24	최고의사결정기구 임명 및 선정	6.2/7.4.3/7.7.5		16,17	●	
	102-26	목적, 가치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16,17	●	
	102-27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공동 지식			16	●	
	102-28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			16	●	
	102-35	보수 정책			77	●	
	102-36	보수 결정 절차			77	●	

공통주제(Universal Standards)						
주제	지표	공개명(Disclosure)	ISO 26000	SDGs	페이지	검증
GRI 102: 일반보고 (General Disclosure)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20,21	●
	102-41	단체협약			79	●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5.3		20	●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20,21	●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21	●
보고관행	102-46	보고내용 및 주제경계 정의			21	●
	102-47	중대 주제 목록 (List of material topics)	5.2/7.3.2/7.3.3/7.3.4		21	●
	102-48	이전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 수정			2	●
	102-49	중대 주제 및 주제범위에 대한 변화			21	●
	102-50	보고 기간			2	●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2	●
	102-52	보고 주기			2	●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7.5.3/7.6.2		2	●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2	●
	102-55	GRI Content Index			84-87	●
	102-56	외부 검증			90,91	●
특정주제(Topic-specific Standards)						
GRI 200: 경제						
간접경제효과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8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24,25,32, 33,42,43, 58,59,66, 67	●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간접 경제효과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6.3.9/6.8.1-6.8.2/6.8.7/6.8.9		26,27,28, 29,39,60, 70,71	●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효과	6.3.9/6.6.6/6.6.7/6.7.8/6.8.1-6.8.2/6.8.5/6.8.7/6.8.9		26,34, 35,63, 69,76,77	●
조달관행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8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66,67	●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조달 관행	204-1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6.4.3/6.6.6/6.8.1-6.8.2/6.8.7		69	●

특정주제(Topic-specific Standards)							
주제	지표	공개명(Disclosure)	ISO 26000	SDGs	페이지	검증	
GRI 200: 경제							
반부패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8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50,51	●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반부패	205-1	사업장의 부패 위험 평가	6.6.1-6.6.2/6.6.3		53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6.6.1-6.6.2/6.6.3		53	●	
GRI 300: 환경							
원재료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8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58,59	●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원재료	301-1	사용한 원재료의 종량이나 부피	6.5.4		63	●	
에너지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8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58,59	●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원재료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6.5.4		63	●	
배출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8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58,59	●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1)	6.5.5		63	●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6.5.5		26	●	
GRI 400: 사회							
고용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8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74,75	●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고용	401-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율	6.4.3		76	●	
	401-2	상근직에게만 제공하는 복리후생	6.4.4/6.8.7		77	●	
	401-3	육아휴직	6.4.4		78	●	

특정주제(Topic-specific Standards)						
주제	지표	공개명(Disclosure)	ISO 26000	SDGs	페이지	검증
산업안전보건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8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58,59	●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산업안전보건	403-1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	6.4.6		61	●
훈련 및 교육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8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74,75	●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훈련 및 교육	404-1	한 해 동안 근로자 1인이 받는 평균 훈련시간	6.4.7		62,78	●
	404-2	근로자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6.4.7/6.8.5		78	●
다양성과 기회균등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8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6,17, 74,75	●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1	거버넌스 조직 및 임직원 내 다양성	6.2.3/6.3.7/6.3.10/6.4.3		17	●
인권평가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8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50,51	●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412-2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임직원 교육	6.3.5		52	●
지역사회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8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66,67	●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활동,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	6.3.9/6.5.1-6.5.2/6.5.3/6.8		70,71	●
고객개인정보보호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8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58,59	●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고객개인정보보호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에 대한 불만 건수	6.7.1-6.7.2/6.7.7		62	●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 제3자 검증의견서

한국연구재단 경영진 귀중

더씨에스알(THE CSR, 이하“검증인”)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결과 보고서’(이하“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검증인은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 프로세스와 성과 전반에 대한 검토결과를 한국연구재단의 경영진에게 제공합니다.

검증기준

검증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18년 사회적 가치 지표(SVI) 활용 매뉴얼’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사회적 가치 이행 성과와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 조직 미션, 사업 활동, 조직 운영 등에서의 사회적 가치 평가
-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노동성과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 기업활동에서의 혁신성 평가

검증수준

검증은 사회적 가치 지표 활용 매뉴얼이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검증을 위한 데이터 샘플링과 현장 인터뷰는 제한적(Limited Level)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검증인이 수행한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결과에 대한 증빙 문서검토
- 사회적 가치 활동에 검증을 위한 담당자 인터뷰
- 검토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제시 및 수정보완 확인

검증한계 및 독립성

검증인은 제한적 범위의 인터뷰와 서면검토를 통해 보고서의 신뢰수준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100%의 정확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증인은 제 3자 검증기관으로서 윤리성과 독립적 지위가 확보된 가운데 검증의견을 제시합니다.

검증의견

검증인은 보고서에 수록된 한국연구재단의 사회적 가치 추진활동에 대한 검증활동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오류나 편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 결과는 2017년 대비 2.0점 향상하였으며 이는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과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 향상에 기인합니다.

전체평가 등급

구분	2017	2018
점수(등급)	90.6점(탁월)	92.6점(탁월)

사회적 가치 지표별 평가점수

영역	측정지표	배점	2017	2018
사회적 미션의 관리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5	5	5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5	5	5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0	8.4	9.0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 수준	5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5	5
이윤의 사회목적 재투자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	6.2	7.6
운영의 민주성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5	5
근로자 지향성	근로자 임금수준	10	10	10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5	5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고용성과	10	10	10
	매출성과	10	10	10
	영업성과	5	1	1
노동성과	노동생산성	5	5	5
기업 활동에서의 혁신성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	10	10
14개 지표		100	90.6	92.6

경영개선권고

한국연구재단이 사회적가치를 경영에 도입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와 전략과제에 반영하여 포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경영방식입니다. 자발적으로 사회적 가치 평가를 도입하고 조직에 내재화하는 과정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성과관리를 위해 R&D 예산 집행 등 재단 고유의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사회 성과 관리도 충실히 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모두 인정받는 사회적 가치 선도기관으로 도약해 가기를 권고합니다.



2019년 3월
더씨에스알 대표이사 정 세 우

제3자 검증의견서

한국연구재단 이해관계자 귀중

더씨에스알(THE CSR, 이하“검증인”)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018 한국연구재단 사회책임경영보고서’(이하“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더씨에스알 검증위원회는 보고서 발간 프로세스와 수록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결과를 한국연구재단의 경영진에게 제공합니다.

검증위원회 구성

검증인은 보고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독립적인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검증위원회로 참여한 검증위원은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프로세스, 보고내용 및 성과 측면에서 심층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증기준

검증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A1000AS(2008) 표준과 GRI Standards의 보고원칙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AA1000AS(2008)의 이해관계자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의 원칙 적용 여부
- GRI Standards의 보고내용과 품질결정에 대한 원칙 충족 여부
- GRI Standards 핵심적 부합방식(Core Option) 충족 여부

검증수준

검증은 AA1000AS(2008)의 원칙 적용을 중심으로 일반수준 검증(Moderate Assurance Level)을 실시하고 데이터 샘플링과 현장 인터뷰는 제한적(Limited Level)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검증위원회가 수행한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고이슈 선정을 위한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의 합리성 점검
- 담당부서 인터뷰를 통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점검
- 한국연구재단의 공공기관 경영실적보고서 합치 여부 확인

검증한계

검증인은 제한적 범위의 인터뷰와 서면검토를 통해 보고서의 신뢰수준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100%의 정확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증독립성

검증인은 제 3자 독립검증기관으로서 윤리성과 독립적 지위가 확보된 가운데 검증의견을 제시합니다.

검증의견

검증인은 AA1000AS(2008) 검증기준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고 가이드라인의 원칙 준수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을 제출합니다.

GRI Standards 핵심적 부합방식 충족 여부

검증인은 보고서 발간 국제가이드라인 GRI Standards 핵심적 부합방식 충족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공통주제 및 특정주제 12개에 대한 지표보고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절차를 통해 확인된 주요 보고측면과 세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주	주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경제효과_203-1, 203-2 반부패_205-1, 20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_204-1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 3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_305-1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_401-1, 401-2, 401-3 훈련 및 교육_404-1, 404-2 인권평가_412-1, 412-2 고객개인정보보호 4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_403-1 다양성과 기회 균등_405-1 지역사회_413-1

AA1000AS(2008) 원칙 적용 여부

검증인은 보고서가 AA1000검증표준의 3대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포괄성의 원칙	한국연구재단은 이해관계자 참여활동을 추진해 왔는가?	검증인은 한국연구재단 이해관계자 선정 프로세스를 확인하였으며, 각 부서별 실시되어온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성의 원칙	한국연구재단은 이해관계자에 중요한 이슈를 보고하는가?	검증인은 한국연구재단의 보고이슈 도출 절차를 확인하였으며, 중대성 평가 절차 검토결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의 원칙	한국연구재단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사항에 적절히 대응하는가?	검증인은 한국연구재단이 이해관계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주요이슈들이 보고서에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영개선권고

한국연구재단이 사회책임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책임경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사회적가치 이행을 위한 재단의 노력이 국가경제 성장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등 긍정적인 사회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향후 재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경영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더불어 최고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내부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로 조직 내 사회책임경영 기반을 강화하여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검증기관의 적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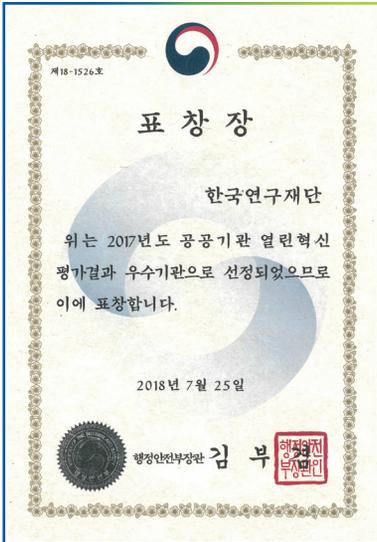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검증을 의뢰 받은 더씨에스알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문기관으로 영국 어카운터빌리티사의 공식인증을 받은 AA1000AS(2008) 검증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의 Gold Community Member 지위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CSR 연구성과를 보유한 다국적 CSR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더씨에스알 검증위원회



검증위원장 정 세 우

수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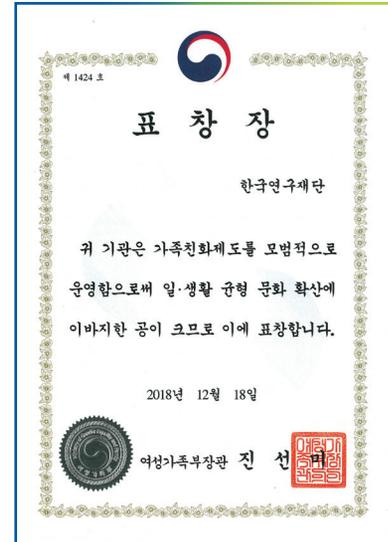
열린혁신 우수기관 표창 (2018.07)

한국연구재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년도 열린혁신 평가 결과 총 123개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A)'에 선정되었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 (2018.11)

한국연구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제6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포상 최초보고서 발간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가족친화 인증 표창 (2018.12)

한국연구재단은 2018년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18 비전 어워드 금상 수상 (2019.02)

재단은 첫 출간한 2017 사회책임경영보고서로 이해관계자 관리, 정보접근성, 창의성, 디자인 등 총 8개의 평가 분야에서 98점을 획득하여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내외 협력기관

해외 협력기관 (2018년 기준)

51개국 80개 기관

유럽 24개국 42기관

- 그리스 FORTH
- 네덜란드 NWO
- 노르웨이 SINTEF, RCN
- 덴마크 IFD
- 독일 DFG, AvH, DAAD, MPG
- 러시아 RFBR, RAS, SKOLKOVO
- 루마니아 RA
- 벨기에 FNRS, FWO-Vlaanderen
- 벨라루스 BRFFR
- 스웨덴 IVA, SSF, STINT, VR
- 스위스 SNSF
- 스페인 CSIC
- 슬로바키아 SAS
- 슬로베니아 SSF
- 영국 AHRC, ESRC, RS, BC, BBSRC
- 오스트리아 FWF
- 우크라이나 NASU
- 이탈리아 CNR
- 체코 GACR, CAS
- 터키 TUBITAK
- 폴란드 PAN
- 프랑스 CNRS, ANR
- 핀란드 AF
- 헝가리 OTKA, HAS, HAE



아시아 13개국 20기관

- 대만 MOST
- 몽골 MAS
- 베트남 NCSSH, VAST
- 브루나이 BRC
- 싱가폴 A*STAR
- 우즈베키스탄 SCST
- 인도 ICSSR, INSA
- 인도네시아 LIPI
- 일본 JSPS, JST
- 중국 CAS, NSFC, CASS, CSTEC
- 카자흐스탄 ScienceFund
- 태국 NRCT
- 필리핀 NAST, NRCP

중동아프리카 6개국 7기관

- 남아프리카공화국 NRF
- 모로코 CNRST
- 우간다 UNCST
- 이집트 ASRT, STDF
- 탄자니아 COSTECH
- 카타르 QNRF

미주 6개국 7기관

- 멕시코 CONACYT
- 미국 NSF
- 브라질 CNPq
- 아르헨티나 CONICET
- 칠레 CONICYT
- 캐나다 NSERC, Mitacs

오세아니아 2개국 4기관

- 뉴질랜드 RSNZ
- 호주 AAS, ARC, ATSE

국내 협약기관 (70개)

1 (주)코엑스	15 국립중앙도서관	29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43 특허청	5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IBK기업은행	16 국립환경과학원	3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44 한국경제신문	5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LG상남도서관	17 국방과학연구소	31 서울역사박물관	4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59 한국원자력연구원
4 경기도	18 국방기술품질원	32 서울특별시교육청	46 한국과학기술원	6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5 계룡산자연사박물관	19 국회도서관	33 수원시	4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61 한국창학재단
6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0 국회입법조사처	3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8 한국과학창의재단	62 한국저작권위원회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네이버(주)	3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63 한국적십자사
8 광주광역시교육청	22 대구광역시교육청	36 인문한국(HK)연구소협의회	50 한국기술사회	6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교육부	23 대덕대학교 부속 어린이집	37 인천광역시교육청	5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65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4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행복누리봄	38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52 한국문학번역원	66 한국철도공사
1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5 대전광역시교육청	3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7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12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6 부산광역시	40 지식경제부 재정통합관리시스템(CLEAN 시스템)	5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3 국립생태원	27 부산광역시교육청	41 충남대학교	5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9 한국한의학연구원
14 국립중앙과학관	28 부산국제영화제	42 테이블포투코리아	5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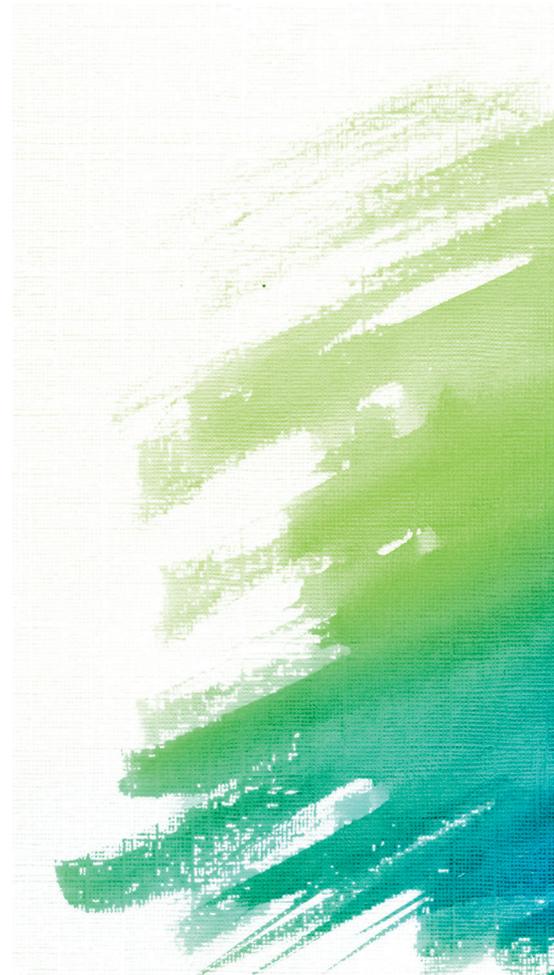


발행인 노정혜
발행처 한국연구재단
발행일 2019.03

대전청사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 042-869-6090, 6092 Fax. 042-869-6777

서울청사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25
Tel. 02-3460-5500 Fax. 02-3460-5519

www.nrf.re.kr



대전청사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 042-869-6090, 6092 Fax. 042-869-6777

서울청사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Tel. 02-3460-5500 Fax. 02-3460-5519